

濟州大學生的 價值觀과 새마을運動

寄與度 測定研究

韓 昌 榮
高 明 奎
姜 柄 燦

.....目 次.....

I. 序 論

-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B. 本 調査의 限界

II. 方法 및 節次

- A. 調査道具
 - 1. 學生用 質問紙
 - 2. 教師 및 住民用 質問紙
- B. 質問紙 製作, 實施 및 調査對象
 - 1. 質問紙 製作 및 實施
 - 2. 調査對象

III. 結果分析

- A. 價值觀에 關한 問題
- B. 近代化에 關한 問題
- C. 새마을運動에 關한 問題
- D. 새마을指導者에 關한 問題
- E. 卒業後 部落發展 및 志向性에 關한 問題
- F. 奉仕活動에 關한 問題

IV. 結 論

- A. 要 約
- B. 提 言
- C. 參考文獻

[Summary]

A Survey of the Values of Jeju College Students and their Contribution to New Community Movement.

New Community movement extending on a national scale is becoming the matter of concern among teachers, dwellers and students.

Jeju islanders are confined within historical, geographical,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in Jeju-Dq. Therefore the students of Jeju College have particular values and patterns of behavior compared with those of students in the mainland.

The objects of this survey are teachers in middle and high schools, dwellers in many villages and students of Jeju college. And the problem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 A. Problem of Values
- B. Problem of Modernization
- C. Problem of New Community Movement
- D. Problem of Leaders of New Community Movement
- E. Problem of Students' Intention to Village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Village after their Graduation
- F. Problem of Service to Community.

The data of the survey was collected by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approach and analyzed by the method of percentage statistics.

The aim of this essay is to seek for a desirable guidance programme in order that students of Jeju college should enact their role for the spreading

of New Community Movement.

Many propositions are to be champion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obtained by the survey.

Some of which I regard most important in each problem are as follows :

A. On the problem of Values.

1.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education at home.
2. to reinforce the cultural guidance and mass education for student's character building.
3. to seek for the guidance plan getting rid of mammonism.
4. to find out the guidance programme for the exercise of "Rule of Ritual Standards" in consideration that students give their enthusiastic support to that rule.

B. On the Problem of Modernization.

1. to teach "General Theory of Leadership" to students as cultural subjects.
2. to teach more agricultural technic than ever.
3. to reinforce the guidance for we-feeling groups.
4. to upbringing local colleges.
5. to find out reciprocal guidance between the improvement of life and the increase of farmer's income.

C. On the Problem of New Community Movement.

1. to guide students in the direction of the inspiration of self-help spirit.
2. to make the pattern of the concrete programme for the practice of New Community Movement.
3. to make a good guidance plan building up the harmonized link between society, mass communication and students.
4. to make a good guidance plan for beautification of city.

D. On the Problem of Leaders of New Community Movement.

1. to guide students in order to make them a leader who has knowledge, sound judgement and ambitious inten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enjoys the confidence of the dwellers.

E. On the Problem of Students' Intention to Village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Village after their Graduation.

1. to exploit the sense of Participation of students.
2. to guide students in the way that they are bound to work in the village as leader.
3. to guide students in the way that they have a preference for the village.

F. On the Problem of Service to Community.

1. to reinforce the Summer Service to community and to encourage the service groups composed of many departments.
2. to change a labour Service to community into technic service to it.

In Shor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New Community Movement will be accelerated if students participate actively in New Community Movement.

I. 序 論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全國 坊坊曲曲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農村近代化의 基礎作業이고, 다시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祖國의 고장, 농촌의 마을을 살기 좋고 알뜰하고 경다운 福地로 만들자는 정열적인 노력이다. (1)

농촌의 마을을 福地로 만들려는 노력은 비단 오늘에 있어진 것은 아니다. (2) 즉 1958년부터 農村의 開發運動이 시도된바 있었다. 그 외에도 4H活動, 農協活動, 農事敎導事業, 再建國民運動, 再建青年會, 再建婦女會, 里洞開發委員會 등이 農村開發運動 또는 C·D運動으로 시도했지만 大概가 큰 成果를 건지 못한채 停滯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3) 이와 같이 지난날에 不發彈으로 點綴된 前轍을 止揚하고 換骨奪胎하여 나타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朴正熙대통령은 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유시를 통해 『농민·관제기관·지도원은 협조를 전제로 한 農村自助勢力의 진작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導火線이 됐다. (4)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의 메아리는 連鎖反應을 일으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現場에서 나타나고 있는 熱意와 그 成果를 본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운동을 5年前 或은 10年前에 시작하지 안했느냐라고 애석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科學的觀點으로 본다면 農村에 이 불길이 붙기 위해서는 基盤의 造成과 誘因을 賦與함과 동시에 農民 스스로부터 意識의 變化가 생기지 않으면 不可能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時點에 到達하였다. (5)

이 새마을운동은 10月維新에서 『새마을 運動을 國家施策의 最優先課業으로 定하며 이 運動을 통해 모든 不條理를 自律的으로 是正하는 社會氣風을 涵養하며 果敢한 福祉均霑政策을 具現해 나갈 것』으로 다짐되었는가 하면 維新憲法 第120條는 『國家는 農漁民의 自助를 기반으로 하는 農漁村開發을 위하여 計劃을 세우며 地域社會의 均衡있는 발전을 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第117條 2項은 『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保護를 받으며 國家는 그 均衡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明示되어 있다.

維新憲法의 이 두가지 條文은 70年下般期부터 불붙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明文化시킨 조

[註1] 내무부, 새마을운동이란, P.7.

[註2] 尹承澤, 地域開發, P. 211~238.

[註3] 金大煥, 地域社會開發과 새마을운동評價에 관한 研究, P.90.

[註4] 제주신문, 72년11월16일. (4)

[註5] 林芳鉉, 5.16精神과 새마을精神, 「世代」72년, 7월호.

항으로 새마을운동의 重要性을 말해주고 있다. 즉 새마을운동은 維新憲法이 정한 國家百年大計의 豪業이요 農村의 維新作業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은 維新大業을 完遂하는 운동으로 그 次元이 憲法化에로 高揚되어진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具現化는 새마을事業으로 나타나거니와 새마을事業의 원동력은 人力과 物力 그리고 주민들의 精神力의 세가지라 하겠으나 人力이 가장 중요한 推進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겠다. (6)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結果가 恒久的이고 發展의인 將來性을 보장하고 감정적인 "잇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많은 問題가 있겠으나, 그 中에서도 가장 重要的 것은 指導者의 問題라고 본다. (7)

반면 指導者의 問題와 관련하여 教育의 必要性이 問題되거니와 『한센』은 『亞細亞의 모든 나라에서는 充分한 教育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하나의 常識이라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東南亞細亞의 다른 나라에 比較해서도 모든 國民이 比較的 높은 教育水準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常識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地域開發을 阻害하고 있는 要因의 첫번째로 敢히 教育의 必要性 다시 말하면 모든 地域住民의 精神의 姿勢를 들지 않을 수 없다. (8)

이와같이 Community Leadership과 精神開發 및 生活態度改善 등의 問題점을 云論하게 될 때 濟州道에 唯一한 最高學府인 濟州大學이 地方大學으로서의 役割期待를 檢討하여 그 에 따른 役割遂行을 하여야 할 것이며 濟州大學生들이 地域社會에 이바지함은 물론 새마을 운동에 積極的이고 能動的으로 參與하여야 할 役割이 期待되어지고 있다.

於間에 濟州大學을 卒業한 濟州大學人들은 濟州道內의 諸分野에서 活動하고 있다. 農漁村의 近代化作業 또는 地域開發에 先導의 役割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濟州大學生들을 잘 교육한다는 것은 첫째로 先輩들의 役割을 繼承하게 만드는 것이며 둘째로 濟州道の 發展 그리고 나아가서 國家發展에 寄與하는 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役割은 行動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런데 個人 및 集團의 諸行動을 理解하려면, 이 諸行動의 根底에 놓여 있는 價値의 構造를 究明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社會改革의 實現도 價値構造의 變化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濟州大學生은 濟州道內에 位置한 濟州大學에서 자라고 있다. 따라서 濟州大學生도 역시 濟州道가 지니고 있는 歷史的, 地理的, 社會的 諸特殊性에 의하여 制約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價値觀도 그러한 테두리에서 짝이 뜨고 발달하여온 것으로 보아진다.

(註6) 崖煥煥, 새마을운동과 人力開發, 「世代」, 72년 9월호.

(註7) 宋玄訓, 새마을운동과 指導者精神, 명가교수단, 「새마을운동 심포지움」, P. 36;

曹廣海, 새마을 政治組織原理로서의 大回歸, 「政經研究」, 72년 11월호 P. 148;

John Friedman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 65.

(註8) 孫賴陸, 太鍾鶴, 「地域開發入門」 P. 240.

(註9) 洪承稷,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亞細亞研究」 第4卷, 第1號, P. 57.

이렇게 歴史的, 地域的特殊性에 의해서 성장발달해온 濟州大學生들의 價値觀을 조사분석하여 그에 대한 取長補短을 하고 농어민들이 회구하는 指導者像을 比較研究하고 새마을운동에 濟州大學生들이 어느 정도 寄與할 수 있는나를 測定하여 본 다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濟州大學生의 價値觀을 바람직한 向方으로 定立시키는데 本論文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B. 本 調査의 限界

본 조사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조사의 學生標集을 본도 유일의 濟州大學에 국한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를 一般化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주로 濟州大學生의 實情把握과 그 規準을 잡기 위하여 본도 시·남북군에 재직하는 中, 高等學校 教師와 거기에 거주하는 住民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조사를 하였다.

2. 본 조사대상에 있어서 本校의 경우는 全集으로 하려고 꾀하였으나 낮은 회수율과 응답미비로 인하여 전집의 半數만으로 정리하였다. 住民과 教師의 경우는 일정한 지역을 선정함이 없이 Random Sampling을 하였다.

3. 豫備調査 (Pilot Study) 없이 本調査 (Major Study) 로 들어갔으므로 잡다한 응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推出·整理하였다.

4. 본 조사의 結果處理에 있어서는 百分率 統計方法만 사용하였고, 또한 여러가지 要因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要因에 따라서 學生의 反應과 教師 및 住民의 反應과의 比率的 差異를 찾아 整理하였다.

II. 方法 및 節次

A. 調査 道具

본 조사연구에서는 質問紙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학생용 질문지와 교사·주민용 질문지로 되었으며, 그 문제영역과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1. 學生用 質問紙

학생용 질문지는 모두 92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各 問題領域과 問項數를 보면,

- a. 價値觀에 關한 問題 (28문항)
- b. 近代化에 關한 問題 (20문항)
- c. 새마을運動에 關한 問題 (18문항)
- d. 새마을指導者에 關한 問題 (9문항)
- e. 卒業後 部落發展 및 志向性에 關한 問題 (8문항)
- f. 奉仕活動에 關한 問題 (9문항) 으로 되어있다.

2 教師 및 住民用 質問紙

教師·住民用 질문지는 모두 6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各 問題領域과 問項數를 보면

- a. 價値觀에 關한 問題 (19문항)
- b. 近代化에 關한 問題 (21문항)
- c. 새마을運動에 關한 問題 (6문항)
- d. 卒業後 部落發展 및 志向性에 關한 問題 (8문항)
- e. 새 마을 指導者에 關한 問題 (10문항)
- f. 奉仕活動에 關한 問題 (4문항) 으로 되어 있다.

B. 質問紙 製作·實施 및 調査對象

1. 質問紙 製作 및 實施

본 질문지의 제작을 위하여 먼저 질문지 제작을 위한 내용검토와 문제영역을 결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각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제영역 결정은 주로 研究陳 會議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본 質問紙 實施는 教師·住民에게는 1972년 5월 8일부터 동년 9월말까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직접 南北郡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大學生들에게도 동년 동일자 사이에 제주시 法文學部, 서귀읍 農學部와 水産學部の 學生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調査對象

본 질문지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a. 學生 標集

학부별로 본 표집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大學 調査對象

(1972, 9월말 현재)

학 부 별	구 분	인 원 수	회 수 매 수	%
법 문 학 부		3 4 1	1 8 8	5 5. 1
농 학 부		1 4 8	7 7	5 2. 0
수 산 학 부		2 1 1	9 6	4 5. 4
전	체	7 0 0	3 6 1	5 1. 5

b. 教師 標集

本道内 中·高校別로 본 표집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濟州郡

- 1. 翰京면; 신창중학교 (9부)
저청중학교 (6부)
 - 2. 翰林읍; 한림실업여자중고등학교 (20부)
 - 3. 涯月면; 귀일중학교 (10부)
 - 4. 朝天면; 조천중학교 (20부)
- 소 계 65부

南濟州郡

- 1. 大靜읍; 무릉중학교 (10부)
 - 2. 安德면; 안덕중학교 (10부)
 - 3. 中文면; 중문원에중고등학교 (10부)
 - 4. 西歸읍; 남주고등학교 (10부)
 - 5. 南原면; 남원중학교 (15부)
 - 6. 表善면; 표선중학교 (10부)
표선농업고등학교 (10부)
 - 7. 域山면; 신산중학교 (10부)
성산수산고등학교 (20부)
- 소 계 105부
총 계 170부

이상 북제주군에서는 1개읍 3개면에서 6個校, 남제주군에서는 3개읍 5개면에서 11個校, 틀 대상으로 거기에 봉직하는 教師들을 無差別 推出하는 方法으로 표본선정을 하였는데, 총 질문서부수 170部에서 91.2%에 해당하는 155部를 有効資料數로 확정지었다.

c. 住民 標集

시·남북군별로 본 주민 표집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濟州市

- 1. 奉蓋동; 동·서회촌 (16부)
- 소 계 16부

北濟州郡

- 1. 舊左면; 한동리 (20부), 하도리 (12부), 연평리 (28부),
- 2. 朝天면; 서늘리 (14부), 와흘리 (10부),
- 3. 涯月면; 장전리 (10부), 수산리 (7부),
- 4. 翰林읍; 명월리 (10부), 대림리 (9부),

- | | |
|--------------------|------------|
| 5. 翰京면; 용수리 (20부), | 청수리 (22부), |
| 소 계 162부 | |

南濟州郡

- | | |
|--------------------|-----------|
| 1. 城山면; 수산리 (20부), | 신산리(12부), |
| 2. 表善면; 토산리 (20부), | 가시리(19부), |
| 3. 南原면; 신흥리 (20부), | 수당리(12부), |
| 4. 西歸음; 보목리 (5부), | |
| 5. 中文면; 하원리 (5부), | |
| 6. 安德면; 창천리 (7부), | 감산리(14부), |
| 7. 大靜음; 무릉리 (5부), | 신도리(13부), |
| 소 계 152부 | |
| 총 계 330부 | |

이상 제주시에서는 1개동 2개부락, 북제주군에서는 1개읍 4개면 11개리, 남제주군에서는 2개읍 5개면 12개리를 대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住民들을 無差別 推出하는 方法으로 標本選定을 하였는데, 총 질문서부수 330부에서 96.4%에 해당하는 319부를 有效資料로 確定하였다.

d. 資料處理

本 調査에서는 百分率(%) 統計的 方法에 의해 모두 處理되었고, 要因別 比較에 있어서는 學生別, 教師別, 住民別 比較를 하였다.

Ⅲ. 結果 分析

A. 價値觀에 關한 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人生觀, 大學觀, 職業觀, 家政 및 結婚觀, 그리고 宗教觀에 대한 問題를 中心으로 한 說問을 包含시켰다.

1. 人生觀

(1) 人間生活을 한 마디로 表現한다면

우리의 人間생활을 한 마디로 表現한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A-1〉 人間生活을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意味 있는 生存競爭의 場이다		39.8	35.1	47.9	41.0	44.5	47.3
즐거운 삶이다		10.6	12.9	3.1	9.1	16.1	20.4
끊임없는 苦海의 連續이다		29.3	32.5	35.4	31.6	10.3	15.9
주어진 人生이니까 살아본다.		15.4	12.9	10.4	13.6	10.3	9.1
기	타	3.2	3.9	3.1	3.3	8.4	2.5
무	응	1.6	2.6		1.4	10.3	4.7
N		188	77	96	361	155	319

※ 모든 항목에 속한 숫자는 %임. N=사례수임.
 法; 法文學部. 農; 農學部. 水; 水産學部임.

〈표A-1〉에 의하던 우리의 인간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 학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있는 생존경쟁의 장이다”가 41.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끊임없는 고해의 연속이다”가 31.6%, 그리고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본다”가 13.6%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미있는 생존경쟁의 장” · “즐거운 삶” 이라고 낙관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은 50.1%로 반수나 되고, 이를 완전히 뒤엎은 “끊임없는 고해의 연속” ·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본다”는 인생을 비관적 부정적으로 보는 학생은 45.2%로 그 수가 많다.

教師·住民의 경우, “의미있는 생존경쟁의 장” · “즐거운 삶” 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사가 60.6%, 주민이 67.7%이고, “끊임없는 고해의 연속” ·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본다”고 표현한 것은 교사가 20.6%, 주민이 25.0%인 것으로 보아, 學生의 경우가 (45.2%) 교사 (20.6%) 와 주민 (25.0%)보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해의 연속” 이고. “주어진 인생이니까 살아본다”는 비관적·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학생들의 반응이 2할 이상이나 높다.

(2)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目標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目標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자신 사업		7.9	9.8	4.4	7.4
학문적 성공		15.7	7.7	10.6	12.6
지도자 입신출세		8.8	7.7	5.3	7.6
완전한 인격완성		33.3	29.2	31.0	31.8
행복한 가정생활·결혼생활		27.8	34.7	40.7	32.9
좋은 직업		6.5	9.8	7.0	7.3
기	타		1.1	0.9	0.4
N		216	92	113	421

※ 합계가 많은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A-2〉에 의하면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목표에 대하여 “행복한 가정생활·결혼생활”이 32.9%로 제일 많고, 다음이 “완전한 인격완성”이 31.8%, 그리고 “학문적 성공”이 12.6%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學生들이 앞으로 이루어 보고 싶은 목표는 첫째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 둘째 완전한 인격완성, 셋째 학문적 성공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敎師와 住民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A-3〉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目標 (敎師·住民)

목표	구분	敎 師	住 民
자선 사업		18.8	36.3
학문적 성공		5.8	8.7
지도자 입신출세		2.9	7.3
완전한 인격완성		50.0	32.8
부자가 되고 싶은 것		22.5	14.7
N		138	299

〈표A-3〉에 의하면 당신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목표에 대한 敎師의 반응은 첫째 완전한 인격완성 (50.0%), 둘째 부자가 되고 싶은 것 (22.5%), 셋째 자선사업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은 첫째 자선사업 (36.3%), 둘째 완전한 인격완성 (32.8%), 셋째 부자가 되고 싶은 것 (1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에는 순위는 다르나, 그 범위는 같음을 알 수 있다.

(3) 당신이 가장 幸福感을 느낄 때

당신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어떤 때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4〉 가장 幸福感을 느낄 때

구분	항목	法	農	水	全 體	敎 師	住 民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		53.6	40.2	45.5	48.4	58.6	44.5
학교생활이 원만할 때		4.3	4.3	4.4	4.4		
가정생활이 즐거울 때		11.1	15.2	17.9	13.9	16.7	14.1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14.0	16.3	17.0	15.3	4.3	2.6
협동해서 일을 성취하였을 때		9.2	10.9	11.6	10.2	9.4	20.0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였을 때		6.8	12.0	2.6	6.8	10.9	18.7
기	타	0.9	1.1	0.9	1.0		
N		207	92	112	411	138	305

※ 학생전체가 많은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A-4〉에 의하면 學生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에 대하여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가 4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때”가 15.3%, “가정 생활이 즐거울 때”가 13.9%, 그리고 “협동해서 일을 성취하였을 때”가 10.2%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教師의 반응은 “목적이 실현 되었을 때” (58.6%), “가정생활이 즐거울 때” (16.7%),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였을 때” (10.9%), “협동해서 일을 성취하였을 때”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住民의 반응은 “목적이 실현” (44.5%), “협동해서 일을 성취” (20.0%), “사회봉사” (18.7%), “가정생활” (14.1%)의 순으로, 順位는 다른데 그 범위는 같음을 알수 있다.

특히 學生들의 반응은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란 항목에서 높은 반면, 教師의 반응은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에, 住民은 협동해서 일을 성취하였을 때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4) 당신이 가장 關心을 갖고 있는 問題

당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5〉 가장 關心을 갖고 있는 問題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16.8	11.4	12.1	14.3	28.3	28.3	
학업 문제	15.1	7.3	11.4	12.4	3.9	9.8	
가장 문제	6.2	7.3	6.6	6.6	15.7	14.9	
친구·이성 문제	9.9	10.6	4.6	8.7	0.8	0.7	
결혼 문제	5.9	5.7	5.6	5.7	2.4	2.3	
전쟁 문제	6.2	1.6	2.0	4.1	10.2	8.1	
장래 문제	24.7	40.7	33.5	30.5	25.1	15.6	
경제 문제	15.4	13.0	23.5	17.0	12.6	8.1	
농·수산 문제					0.8	12.2	
기 타		2.4	0.7	0.6			
N	292	123	149	564	127	307	

※ 학생전체가 많은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A-5〉에 의하면 學生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장래문제”가 30.5%로 제일 높고, 다음이 “경제문제”가 17.0%,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14.3%, 그리고 “학업문제”가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敎師·住民의 경우, 반응의 차이는 있으나 그 범위는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 (평균 약 3할), “장래문제” (2할) “가정문제” (1할이상), “경제문제” (1할) 의 순이다.

따라서 學生側은 장래·경제문제에서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敎師·住民은 같은 비율로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문제 및 가정문제에서 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특히 住民은 농수산문제에서도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은 관심의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2. 大 學 觀

(5) 당신이 생각하는 大學의 性格

당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6〉 大 學 的 性 格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敎 師	住 民
교양을 쌓는 곳		32.0	20.6	39.2	31.4	23.4	25.4
학문을 연구하는 곳		34.2	27.8	19.1	28.8	48.9	45.9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곳		16.7	24.7	18.3	19.0	5.5	2.0
직장이나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		5.7	9.3	7.5	7.0	3.4	0.9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		11.4	16.5	15.0	13.5	18.6	25.7
기 타			1.0	0.8	0.4		
N		228	97	120	445	145	303

※ 학생전체가 많은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A-6〉에 의하면 學生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성격에 대하여 “교양을 쌓는 곳” 이 31.4%로 제일 높고, 다음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 으로 28.8%,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곳” 으로 19.0%, 그리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 으로 13.5%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敎師·住民의 반응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 (양쪽평균 47.4%), “교양을 쌓는 곳” (24.4%),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 (22.1%) 의 순이다.

따라서 學生들의 반응은 교양을 쌓는 곳·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곳 이라는 항목에서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敎師·住民의 반응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항목에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에 대한 반응은 住民이 높은 경향이다.

(6) 당신이 가장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敎授像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는 어떤 상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7〉 理想的인 教授像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강의를 잘하는 교수		7.1	6.7	9.0	7.6
대인관계가 좋은 교수		18.2	20.5	18.0	18.6
학구적 지도력이 있는 교수		36.8	29.5	31.1	33.7
연구활동에 충실한 교수		8.9	5.7	10.7	8.9
성적평가를 엄격히 하는 교수		1.8	5.7	3.3	2.9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성의껏 대하여 주는 교수		27.1	28.2	27.8	27.5
기 타			3.6		0.9
N		226	88	122	436

※ 합계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A-7〉에 의하면 學生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수에 대하여 “학구적 지도력이 있는 교수”가 33.7%로 제일 많고, 다음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성의껏 대하여 주는 교수”가 27.5%,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은 교수”가 18.6%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의를 잘 하는 교수나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보다는, 오히려 학구적 지도력과 학생들과의 관계 또는 인간관계가 좋은 교수를 더욱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학교수와 성적과는 별로 관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7) 大學生活에서 느끼는 가장 不滿點

대학생활에서 당신이 느끼는 가장 불만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8〉 大學生活에서 느끼는 가장 不滿點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좋은 시설이 없다		27.2	26.9	28.6	27.5
마음에 드는 강의가 없다		11.4	10.9	8.0	10.3
좋은 친구가 없다		3.4	3.3	5.7	4.0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다		16.5	5.9	14.3	13.7
학교가 시와 서귀포로 분산되어 있다		10.4	21.0	19.4	15.2
휴강이 많다		7.7	13.4	3.4	7.6
교수진이 부족하다		21.8	16.0	18.8	19.8
기 타		1.6	2.5	1.7	1.9
N		298	119	175	592

※ 합계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A-8〉에 의하면 대학생활에서 學生들이 느끼는 가장 불만점에 대하여 “좋은 시설이 없다”가 27.5%로 제일 많고, 다음이 “교수진이 부족하다”가 19.8%, “학교가 시와 서귀포로 분산되어 있다”가 15.2%,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다”가 13.7%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學生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과 학과목에 따른 교수진의 부족, 캠퍼스 분산 및 의견이 반영 안된다는 것에 불만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겠다.

(8) 休講이나 休息時間을 보내는 方法

당신은 학교생활 중 휴강이나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9〉 休講이나 休息時間을 보내는 方法

항목	구분				全 體
	法	農	水		
잡담을 한다	25.1	26.8	20.4	24.3	
도서관에 간다	23.0	19.5	20.4	21.5	
외출 한다	7.3	20.7	9.2	10.8	
휴식을 취한다	38.7	26.8	45.9	38.0	
기 타	5.8	6.1	4.1	5.4	
N	191	82	98	371	

※ 합계가 많은것은 2중 응답자 있기 때문이다.

〈표A-9〉에 의하면 學生들이 학교생활중 휴강이나 휴식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하여 “휴식을 취한다”가 38.0%로 제일 많고, 다음이 “잡담을 한다”가 24.3%, “도서관에 간다”가 21.5%, 그리고 “외출한다”가 10.8%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에 간다는 학생이 2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아, 휴강이나 휴식시간을 좀더 유용하고 바람직하게 사용할 줄 아는 태도가 길러져야 하겠다.

(9) 地域住民이 自己子女를 本校에 얼마나 보내나

당신은 지역주민들이 자기자녀를 본교에 얼마나 보내고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0〉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기자녀를 얼마나 보내고 있는냐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 보내고 있다”가 36.6%로 가장 많고, “그저 그렇다”가 28.8%로 다음이고, 그 다음이 “많이 보내고 있다”가 19.1%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A-10>

自己子女를 本校에 얼마나 보내나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많이 보내고 있다		4.3		1.0	2.5
많이 보내고 있다		20.7	26.0	10.4	19.1
그저 그렇다		27.6	27.3	32.3	28.8
적게 보내고 있다		37.7	27.3	41.7	36.6
아주 적게 보내고 있다.		4.3	15.5	12.5	8.9
무 응 답		5.3	3.9	2.1	4.1
N		188	77	96	361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자기자녀를 본교에 적게 보내고 있다. (36.6%) 와 아주 적게 보내고 있다. (8.9%) 의 둘을 합한 결과는 전체의 45.5%이고, 많이 보내고 있다. (19.1%) 와 매우 많이 보내고 있다. (2.5%) 를 둘다 합한 결과는 전체의 21.6%나 된다.

이에 대하여, 이 고장 사람들은 자기자녀를 본교에 얼마나 보낼려고 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와 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1> 이 고장사람들이 自己子女를 本校에 얼마나 보내나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매우 많이 보낼려고 한다		6.4	18.5
많이 보낼려고 한다		38.1	41.7
그저 그렇다		31.6	19.1
적게 보낼려고 한다		9.0	7.2
아주 적게 보낼려고 한다		3.8	2.8
무 응 답		11.0	10.7
N		155	319

<표A-11>에 의하면 教師들의 반응은 위와같은 식으로 “많이 보낼려고 한다” 가 전체의 44.5%이고, “적게 보낼려고 한다” 가 전체의 12.8%로 나타났고, 또 住民들의 반응은 “많이 보낼려고 한다” 가 전체의 60.2%이고, “적게 보낼려고 한다” 가 전체의 10.0%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教師들 (44.5%) 보다 住民들 (60.2%) 이 자기자녀를 본교에 보낼려고 한다는 반응의 비율이 훨씬 높다.

(10) 만약 적게 보낸다면 그 理由

만약 적게 보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표A-12〉 적게 보내는 그 理由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돈이 없기 때문에		4.3	3.5	10.6	5.8	18.3	51.8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26.6	24.7	26.0	25.8	38.2	16.3
제주시와 서귀포로 캠퍼스가 분산되기 때문에		16.5	30.6	23.1	21.4	8.4	4.8
마음에 맞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12.2	7.1	4.7	9.1	16.0	8.8
학생들이 육지부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37.7	31.8	33.6	35.4	17.6	18.3
기 타		1.6	2.3	1.9	1.9	1.5	
무 응 답		1.1			0.5		
N		188	85	104	377	131	251

※학생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A-12〉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기자녀를 본교에 적게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학생들이 육지부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가 35.4%로 으뜸이고, 다음이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가 25.8%,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로 캠퍼스가 분산되기 때문에”가 21.4%의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教師·住民의 반응을 보면, 항목에 따라서 반응의 순위는 다르나, 그 범위는 같음을 알 수 있다. 教師側에서는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38.2%), “돈이 없기 때문에”(18.3%), “학생들이 육지부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17.6%), “마음에 맞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16.0%)의 순이고, 住民側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51.8%), “학생들이 육지부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18.3%),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16.3%)의 순이다.

특히 學生들은 학생들이 육지부로 진출·캠퍼스 분산이란 항목에 훨씬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住民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에서, 教師들은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에서 훨씬 높은 반응을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3. 職 業 觀

(11) 學生의 大學卒業後의 計劃

학생의 대학졸업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3〉에 의하면 學生들의 대학졸업후의 계획에 대하여 “취직”이 35.0%로 제일 많

고, 다음이 “대학원 진학” “군 복무” 가 각각 23.8%, 23.0%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A-13〉 大學卒業後의 計劃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결 혼		5.9	4.9	7.5	6.1
취 직		32.7	28.0	45.3	35.0
대학원 진학		29.7	19.5	16.0	23.8
외국 유학		7.9	9.8	9.4	9.1
군 복 무		22.3	29.3	19.8	23.0
기 타		1.5	8.3	1.9	3.0
N		202	82	106	390

※학생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5%가 대학졸업후 취직하기를 바라고 있고, 46.8%중에는 계속하여 학구적인 생활을 원하는 학생과 국민의 3대 의무중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마쳐 한국의 남아로서 멋있게 살려는 학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學生이 將次 擇하려는 職種

학생은 장차 어떤 직종을 택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4〉 將次 擇하려는 職種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권력을 누릴수 있는 직종		13.2	6.2	10.6	11.1
명예를 얻을수 있는 직종		17.0	8.4	3.8	11.7
돈을 벌 수 있는 직종		25.5	43.3	41.3	34.1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종		28.7	19.7	15.4	23.3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종		7.4	13.7	25.0	13.8
기 타		5.8	8.4	3.8	6.0
무 응 답		2.1			
N		184	81	104	369

※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A-14〉에 의하면 學生들은 장차 어떤 직종을 택하겠느냐에 대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직종” 이 34.1%로 제일 많고, 다음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종” 이 23.3%, 그리고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종이” 13.8%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사

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직종을 택하려는 학생은 37.1%에 불과하고, 권력·명예·돈등 일신의 개인적 욕망과 이익에 관계되는 직종을 택하려는 학생은 56.9%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학출신자들이 다음 어느 직종을 택해주시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들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5〉 大學出身者에게 擇해 주기를 바라는 職種

항목	구분	敎	師	住	民
권력을 누릴수 있는 직종		2.2		4.5	
명예를 얻을수 있는 직종		2.9		6.5	
돈을 벌 수 있는 직종		8.1		2.4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종		36.0		51.2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종		50.7		35.3	
N		136		291	

〈표A-15〉에 의하면 대학출신자들에게 택해 주기를 바라는 직종에 대하여 敎師들의 반응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종”이 50.7%로 제일 많고, 다음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종”이 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住民들은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종”이 51.2%로 으뜸이고, 다음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종”(35.3%)의 순위로서, 그 반응의 순위는 다르나, 그 범위는 같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敎師들은 주민들보다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직종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住民들은 교사들보다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종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13) 職場을 옮기는 問題에 대한 見解

당신은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6〉에 의하면 學生들은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 “때에 따라서는 바꾸는 것도 좋다”가 4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정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가 30.8%, 그리고 “동일체통의 직장을 바꾸는 것은 좋다”가 17.0%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대학졸업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6>

職場을 옮기는 問題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일정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30.3	27.3	35.4	30.8
때에 따라서는 바꾸는 것도 좋다	42.5	46.8	38.0	42.4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	1.1	3.8	3.1	2.2
동일 계통의 직장을 바꾸는 것은 좋다	15.9	18.2	17.7	17.0
아주 틀린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좋다	2.1		5.2	2.5
무 응 답	7.9	3.8		5.0
N	188	77	96	361

<표A-17>

大學卒業者들이 職場을 옮기는 問題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일정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47.7	40.1
때에 따라서는 바꾸는 것도 좋다	24.5	31.3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다	0.6	3.1
동일 계통의 직장을 바꾸는 것은 좋다	14.8	9.7
아주 틀린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좋다	0.6	1.3
무 응 답	11.6	14.4
N	155	319

<표A-17>에 의하면 대학졸업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은 “일정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가 47.7%로 으뜸이고, 다음이 “때에 따라서는 바꾸는 것도 좋다”가 24.5%, 그리고 “동일 계통의 직장을 바꾸는 것은 좋다”가 14.8%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도 그 순위는 같고, “일정한 직업을 계속 유지”가 40.1%, “때에 따라 바꿈”이 31.3%, “동일계통의 직장으로 바꿈이” 9.7%의 순위이다.

특히 教師들은 주민들보다 일정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서 약간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住民들은 교사들보다 때에 따라서는 바꾸는 것도 좋다는 항목에서 약간 높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4. 家 政 觀

(14) 父母任들의 學生의 將來에 대한 所願

부모님들은 학생의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

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7〉 學生의 將來에 대한 所願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결혼하면 그만이다		10.6	5.2	11.5	9.7
뚜렷한 직업을 갖게 해야겠다		56.9	67.5	52.1	57.9
외국유학을 시키겠다		6.9	7.8	4.1	6.4
경제적 도움을 바라야겠다		12.8	9.1	25.0	15.2
기 . 타		4.2	7.8	4.1	4.9
무 응 답		8.4	2.6	3.1	5.8
N		188	77	96	361

〈표A-17〉에 의하면 부모님들은 학생의 장래에 대한 소원에 대해서, “뚜렷한 직업을 갖게 해야겠다”가 57.9%로 제일 많고, 다음이 “경제적 도움을 바라야겠다”가 15.2%, 그리고 “결혼하면 그만이다”가 9.7%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60%정도의 父母任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래 희망은 “뚜렷한 직업을 갖게 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만약 父母라면 子女에게 힘들여 가르칠 教訓

당신이 만약 부모라면 자녀에게 힘들여 가르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8〉 父母라면 子女에게 힘들여 가르칠 教訓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종교·도덕교육		9.2	7.1	7.6	8.2
원만한 대인관계		17.9	15.3	15.9	16.8
절제·규칙있는 생활		19.4	16.5	15.9	17.8
독립정신·강한 신념		53.3	61.1	60.7	57.1
N		195	85	107	387

※ 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A-18〉에 의하면 만약 學生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힘들여 가르칠 교훈에 대하여 첫째 “독립정신·강한신념” (57.1%), 둘째 “절제·규칙 있는 생활” (17.8%), 셋째 “원만한 대인관계” (16.8%)를 들고 있다.

따라서 6할 정도의 學生들은 미래의 자녀 교육관으로서 “독립정신·강한 신념”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 발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모로서 자녀에게 힘들여 가르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들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19〉 父母로서 子女에게 힘들여 가르칠 教訓 (교사·주민)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종교·도의교육	9.9	11.0
원만한 대인관계	13.4	12.1
절제·규칙있는 생활	18.3	25.0
독립정신·강한 신념	58.4	51.9
N	142	264

〈표A-19〉에 의하여 부모로서 자녀에게 힘들여 가르칠 교훈에 대한 教師의 반응을 보면, 첫째 “독립정신·강한신념” (58.4%), 둘째 “절제·규칙있는 생활” (18.3%), 셋째 “원만한 대인관계” (13.4%)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의 반응의 순위도 같은데, 첫째 “독립정신·강한 신념” (51.9%), 둘째 “절제·규칙 있는 생활” (25.0%), 셋째 “원만한 대인관계” (12.1%)를 들고 있다.

따라서 學生·教師·住民들은 3자 모두 부모로서 자녀의 교훈으로 같은 순위로 첫째 독립정신·강한신념, 둘째 절제·규칙있는 생활, 셋째 원만한 대인관계를 들고 있다.

특히 學生과 教師들은 주민들보다 자녀에 대한 교훈으로 “독립정신·강한신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다.

(16) 당신이 딸만 셋을 가진 父母라면

당신이 만약 딸만 셋을 가진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0〉에 의하면 學生이 만약 딸만 셋을 가진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하여 “아들이나 딸이나 똑 같으니깐 훌륭히 키운다”가 51.0%로 가장 많고,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가 23.5%로 다음이다.

따라서 50%의 학생들은 아들과 딸에 대한 비중은 동등하게 보고 있으나, 23.5%는 男尊女卑의 思想 즉 아들의 필요성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教師와 住民의 반응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 같이 키우겠다”가 각각 41.9%, 56.1%이고,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가 각각 35.5%, 18.8%로 나타났다.

딸만 셋을 가진 父母라면

<표A-20>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아들을 꼭 낳아야겠다		21.9	32.5	19.8	23.5	35.5	18.8
요즈음은 딸이 더 좋다		1.1	3.8	4.1	2.4	1.9	3.4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으니까 훌륭히 키운다		51.6	45.5	54.2	51.0	41.9	56.1
잘 모르겠다		14.9	14.3	19.8	16.1	5.1	4.1
무 응 답		10.6	3.8	2.1	6.9	15.6	17.6
N		188	77	96	361	155	319

특히 教師들은 “아들”의 필요성을 주민·학생들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學生·住民들은 “아들·딸에 同等한 比重”을 두는 경향이 교사들보다 높은데, 이런 경향은 學生들보다 住民들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7)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아들딸 數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아들딸 수는 몇이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1>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子女數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딸 하나		0.5		2.1	0.8		0.3
아들 하나		3.2	1.3	1.0	2.2		2.1
아들 하나, 딸 하나		28.2	15.6	22.9	24.1	13.5	16.9
아들 둘, 딸 하나		37.7	50.6	52.1	44.3	54.8	47.3
딸 둘, 아들 하나		2.7	5.2	3.1	3.3	1.3	3.7
아들 둘, 딸 둘		12.3	15.6	12.5	13.0	16.1	14.1
그 이상		5.8	5.2	4.1	5.3	3.8	2.1
무 응 답		9.6	6.5	2.1	6.9	10.3	13.2
N		188	77	96	361	155	319

<표A-21>에 의하면 學生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아들딸 수에 대하여 “아들 둘, 딸 하나”가 44.3%로 제일 많고, 다음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24.1%, 그리고 “아들 둘, 딸 둘”이 13.0%의 순위로 나타났다.

教師·住民의 경우도 “아들 둘, 딸 하나”가 각각 54.8%, 47.3%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각각 13.5%, 16.9%, 그리고 “아들 둘, 딸 둘”이 각각 16.1%, 14.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3층 모두 이상적인 자녀수로서는 아들 둘, 딸 하나인 셋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경향은 학생들보다 住民, 주민들보다 敎師들이 높은 반면에, “아들 하나, 딸 하나”에 대한 항목은 교사들 보다 住民, 주민들 보다 學生들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 앞으로 家庭儀禮準則의 實踐度

당신은 가정의례준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싶은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2> 家政儀禮準則의 實踐度

항 목	구 분				全 體
	法	農	水		
매우 잘 실천하고 싶다	18.5	16.9	13.5	16.9	
잘 실천하고 싶다	37.3	42.9	39.0	39.1	
그저 그렇다	22.8	26.0	30.2	25.5	
별로 실천하고 싶지 않다	8.5	7.8	11.5	9.1	
전혀 실천하고 싶지 않다	2.1		3.1	1.9	
무 응 답	10.6	6.5	2.1	7.5	
N	188	77	96	361	

<표A-22>에 의하면 學生들이 앞으로 가정의례준칙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잘 실천하고 싶다”가 39.1%로 제일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25.5%, 그리고 “매우 잘 실천하고 싶다”가 16.9%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잘 실천”과 “잘 실천” 둘을 합한 56.0%의 학생들은 가정의례준칙을 잘 실천하려고 하고, “별로”와 “전혀” 둘을 합한 11.0%의 학생들은 별로 실천하고 싶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이 고장 주민들이 가정의례준칙을 어느 정도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의 반응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3>에 의하면, 이 고장 주민들이 가정의례준칙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敎師들의 반응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21.2%이고,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은 전체의 25.8%이다.

이에 대하여, 住民들의 반응은 “잘 실천하고 있다”가 전체의 55.8%이고, “실천하고

있지않다” 가 10.0%이다.

<표A-23> 現在 이고장 住民들이 家政儀禮準則의 實踐度 (教師·住民)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		3.8	15.7
잘 실천하고 있다		17.4	40.1
그저 그렇다		42.6	21.9
실천하고 있지 않다		18.1	6.6
매우 실천이 안되고 있다		7.7	3.4
무 응 답		10.3	12.2
N		155	319

따라서, 교사들 보다 住民들이 이 고장 주민들이 가정의례준칙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반응은 3할이나 높다.

5. 異性 및 結婚觀

(19) 現在 異性交際의 有無

현재 당신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4> 現在 異性交際의 有無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하고 있다		36.7	40.3	45.8	39.9
하고 있지 않다		46.3	39.0	41.7	43.5
기 타		3.2	10.4	8.3	6.1
무 응 답		13.8	10.4	4.1	10.5
N		188	77	96	361

<표A-24>에 의하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 (361명) 중 39.9%인 144명이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학생은 전체의 43.5%인 157명으로 나타났다.

(20) 異性交際를 하는 理由

만약 당신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다음 어떤 이유때문이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

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5> 異性交際를 하는 理由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4.1	4.4	8.4	5.6
결혼 대상자를 고르기 위해서		17.2	14.6	13.9	15.6
이성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59.8	61.0	52.9	58.1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14.8	15.4	16.4	15.6
기 타		4.1	4.4	8.4	5.1
N		122	69	79	270

※ 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A-25>에 의하면,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학생 144명은 이성교제의 이유에 대하여, “이성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가 58.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결혼대상을 고르기 위해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각각 15.6%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생활중의 이성교제는 결혼 대상자를 고르기 위해서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의 이유보다는, 異性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하여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밖에 異性에 대한 호기심의 이유는 별로 이성교제의 이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1) 大學生活中的 異性交際의 必要性

당신은 대학생생활중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6> 異性交際의 必要性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꼭 필요하다		23.4	27.3	16.7	22.4
어느 정도 필요하다		63.3	55.8	71.9	64.0
필요 없다		4.2	3.8	7.3	4.9
기 타		0.5	5.2	1.0	1.6
무 응 답		8.4	7.8	3.1	6.9
N		188	77	96	361

<표A-26>에 의하면 대학생생활중의 이성교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64.0%로 제일 많고, 다음이 “꼭 필요하다”가 22.4%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86.4%의 學生들은 대학생활동 중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은 전체의 3분의2 가량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1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2)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

당신은 이성교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異性交際가 學業에 미치는 影響

<표A-27>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지장을 가져온다		18.5	14.3	19.8	18.2
도움을 가져온다		20.7	29.8	30.2	25.2
별 영향이 없다		41.5	44.2	41.7	42.1
기 타		2.7	2.6	2.1	2.4
무 응 답		16.5	9.1	6.3	12.2
N		188	77	96	361

<표A-27>에 의하면 學生들이 이성교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다”가 4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도움을 가져온다”가 25.2%, 그리고 지장을 가져온다”가 18.0%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성교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는 학생은 전체의 42.1%이고, 지장을 가져온다는 비율에 비하여서는 도움을 가져온다는 반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아, 지장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약간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성교제의 방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個人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3)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

단일 결혼한다면 무엇을 보고 결혼하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8>에 의하면 배우자선택의 기본조건에 대하여 學生들은 첫째 “인격·성격” (42.9%), 둘째 “건강·용모” (20.4%), 셋째 “학력·지능” (15.3%)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教師의 경우, 첫째 “인격·성격” (47.2%), 둘째 “생활력” (35.9%), 셋째 “건강·용모” (8.4%)를 들고 있는 반면, 住民의 경우도 역시 첫째 “인격·성격”

(41.7%), 둘째 “생활력” (39.8%), 셋째 “건강·용모” (13.2%) 를 같은 순위로 들고 있다.

<표A-28> 配偶者 選擇의 基本條件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건강·용모		18.5	21.2	23.8	20.4	8.4	13.2
생활력		15.6	16.3	11.5	14.7	35.9	39.8
인격·성격		40.0	43.1	48.4	42.9	47.2	41.7
학력·지능		17.0	16.3	10.8	15.3	1.4	0.8
혈통·가문		5.6	1.0	3.1	4.0	3.5	1.9
직업		2.6	2.0	0.8	1.9	3.5	2.6
기타		0.7		1.6	0.7		
N		270	104	130	504	142	266

따라서 學生들은 배우자선택의 기본조건으로 “인격·건강·학력” 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教師·住民들은 “인격·생활력·건강” 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學生들은 “건강·학력” 이란 항목에서, 教師·住民은 “생활력” 이란 항목에서, 또 教師는 “인격” 이란 항목에서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점은 그들의 생활배경이 다른데서 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반응의 결과는 종래의 가문중심에서 個人·實力主義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과 봉건주의적 낡은 사상에서 탈피되어가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4) 定婚하는 方法

결혼은 어떤 方法에 의하여 정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25> 定婚하는 方法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부모가 정하여 준 사람		4.2	5.2	2.1	3.9	3.8	6.6
친지나 친구가 정하여 주는 사람		2.1	1.3	5.2	2.7	0.6	
자기가 선택한 사람		60.6	57.1	68.8	62.0	29.7	34.2
부모와 서로 의논해서 정한 사람		21.8	28.6	21.9	23.3	54.8	39.5
기타		0.5			0.2		
무응답		10.6	7.8	2.1	7.7	11.0	19.7
N		188	77	96	351	155	319

<표A-29>에 의하면 學生들의 배우자 선택의 방법은 “자기가 선택한사람”이 62.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모와 서로 의논해서 정한 사람”이 23.3%의 순위로 나타났다.

教師·住民의 경우는 “부모와 서로 의논해서”가 각각 54.8%, 39.5%,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각각 29.7%, 34.2%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징혼하는데 있어서 學生들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란 항목에서 교사·주민들보다 훨씬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教師·住民들은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부모의 의견과 합의된 배우자를 선택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은 인생경험을 풍부히 하지 못한 학생들에 좋은 지도조언이 될 줄 안다. 이러한 반응은 教師들이 훨씬 높다.

그리고, 종래의 봉건적인 방법인 부모가 정하여 준 사람과 定婚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아 소멸해 가고 있음도 시사해 준다.

(25) 配偶者の 學歷

당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학력은 어느 정도가 좋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30> 配偶者の 學歷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대학교 졸업		37.2	10.4	21.9	27.4	16.8	7.2
고등학교 졸업		46.7	70.1	64.6	56.5	52.3	30.1
중학교 졸업		1.1	6.5	1.0	2.2	5.1	24.1
국민학교 졸업		.	1.3	1.0	0.4	0.6	1.8
학력에 무관		6.4	9.1	10.4	8.0	9.6	19.1
무응답		8.5	2.6	1.0	5.3	15.5	17.6
N		188	77	96	361	155	319

<표A-30>에 의하면, 學生들이 원하는 배우자의 학력에 대해서 “고졸”이 56.5%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졸”이 27.4%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경향은 教師의 경우, “고졸”이 52.3%, “대졸”이 16.8%이고, 住民의 경우, “고졸” 30.1%, “중졸” 24.1%로 나타났다.

三者 모두 배우자의 학력수준으로서 “고졸”을 일반적으로 원하는 경향인데, 특히 이에 대한 學生·教師들의 높은 반응은 지성인과의 대화의 광장을 가지려면 고졸이상의 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졸”의 항목에서는 學生측이, “중졸”의 항목에서는 住民들측이 보다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학력에 대한 반응의 비율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개인의 학력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의 배경, 시대적 민감성등에 따라서 원하는 배우자의 학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히 알 수 있다.

6. 宗 教 觀

(26) 現在 宗教의 有無

당신은 현재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31>

現在 宗教의 有無

학 목	구 분	現在 宗教의 有無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갖고 있다		54.3	67.5	62.5	59.3	54.2	53.9
갖고 있지 않다		45.7	32.5	37.5	40.7	40.0	39.8
무 응 답						5.8	6.2
N		188	77	96	361	155	319

표<A-31>에 의하면 전 조사대상자 중(361명)59.3%인 214명의 學生들은 현재 “종교”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7%인 147명은 “비종교인”으로 나타났다.

教師인 경우는 전 조사대상자 155명 중 54.2%인 84명이 “종교인”이고 나머지 40.0%인 62명이 “비종교인”이다.

住民의 경우도 전체의 53.9%인 172명은 “종교인”이고, 나머지 39.8%인 127명은 “비종교인”이다.

따라서 반응의 비율로 미루어 보아, 學生들은 교사들 보다, 教師는 주민들보다 종교를 가진 율이 약간 많은 경향이다.

(27) 現在 갖고 있는 宗教

현재 종교를 갖고 있다면, 어떤 종교이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32>에 의하여 종교별로 보면, 學生들의 반응은 “기독교”의 항목에 44.9%로 제일 많고, 다음이 “불교”가 42.5%의 순위로 나타났다.

教師의 경우는 “불교”가 52.4%, “기독교”가 32.1%이고, 住民의 경우도 “불교”가 53.5%, “기독교” · “유교”가 각각 20.3%로 나타나고 있다.

<표A-32>

現在 갖고 있는 宗教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유 교		2.0		5.0	2.3	8.1	20.3
불 교		40.1	48.1	41.7	42.5	52.4	53.5
기 독 교		47.1	42.3	43.3	44.9	32.1	20.3
기 타		10.8	9.6	10.0	10.3	7.3	5.8
N		102	52	60	214	84	172

따라서 學生들은 “기독교”에서 교사·주민들 보다 월등히 높은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教師·住民들은 학생들 보다 “불교”에서 훨씬 높은 반응을 보여주는 점이 특히 이채롭다.

이로 미루어 보며 學生들은 서구의 종교에, 教師·住民들은 전통적인 종교에 민감함을 알수있다.

(28) 宗教가 日常生活에 주는 도움

당신은 종교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A-33>

宗教가 日常生活에 주는 도움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가장 크게 도움을 준다		14.4	11.7	10.4	12.7	9.0	12.2
크게 도움을 준다		31.9	32.5	39.6	34.1	36.7	20.4
그저 그렇다		39.3	40.2	33.3	37.9	30.3	33.2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6.9	11.7	10.4	8.9	5.2	3.8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1	1.3	6.3	2.5	1.9	3.4
무 응 답		6.3	2.6		3.3	16.7	26.9
N		188	77	96	361	155	319

<표A-33>에 의하면 學生들이 종교가 일상생활에 주는 도움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가 37.9%로 가장 많고, 다음이 “크게 도움을 준다”가 34.1%, 그리고 “가장 크게 도움을 준다”가 12.7%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크게 도움”(12.7%)과 “크게 도움”(34.1%)을 합한 결과인 전체의 46.8%의 學生들은 종교가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반응하고 있고, 37.9%의 학

생들은 “보통으로 보고 있고, 11.4%의 학생들은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

教師들의 반응도 전체의 45.7%는 “크게 도움을 준다” 고 보고 있고, “보통” 이 30.3%, 7.1%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고 반응하고 있다.

住民들은 전체의 32.6%는 “크게 도움을 준다” 고 보고, 33.2%는 “보통”, 나머지 7.2%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學生(46.8%)과 教師(45.7%)들은 종교가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보는 반응의 비율은 住民(32.6%)들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인들이 종교의 도움을 긍정하는 경향이다.

B. 近代化에 關한 問題

이 問題 領域에서는 새로운 農水産 技術과 營農方法을 배우는 곳, 地域社會의 實情으로 가장 重要的 點, 새마을을 開發하는데 第一 必要的 點, 社會的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第一 重要的 點, 한가한 時間을 利用하여 배우고 싶은 일, 한 國家나 事業에 運이 있어야 잘 된다는 生覺, 學閱, 願하는 生活樣式, 農漁村生活의 將來와 그 살기 좋은 理由等에 對한 問題를 包含시켰다.

(1) 새로운 農水産技術과 營農方法을 效果的으로 배우는 곳

당신은 농어민들이 새로운 농수산 기술이나 영농방법을 어디에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

새로운 農水産技術과 營農方法을 배우는곳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자기 경험		15.4	13.9	19.5	16.0
농촌 지도소		38.0	34.4	28.8	35.2
동리 유지		1.0	0.8		0.7
우수한 부락청년		2.7	4.9	1.7	3.0
신문, 라디오방송		8.6	5.7	8.5	7.9
강 연		10.6	13.9	12.7	11.8
학 교		5.8	7.4	8.5	6.8
책		17.8	18.9	20.3	16.6
N		292	122	118	532

※ 학생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B-1>에 의하면 농어민들이 새로운 농수산기술이나 영농방법을 효과적으로 배운다고 보는 곳으로 學生들은 첫째 “농촌지도자”, (35.2%), 둘째 “책”, (18.6%) 셋째 “자기경험”, (16.0%), 넷째 “강연”, (11.8%) 등을 들고 있다.

사례수가 본 조사인원수보다 많음은 한 사람이 그 이상 선택한 자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신은 새로운 농사기술이나 영농방법을 어디에서 많이 배우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2) 새로운 農事技術과 營農方法을 배우는곳 (教師·住民用)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자기 경험		15.7	29.4
농촌 지도자		20.7	32.6
동리 유지		2.9	2.4
우수한 부락청년		6.4	6.8
신문, 책		35.0	15.0
강연, 라디오방송		5.0	7.6
학 교		12.9	3.5
기 타		1.4	2.6
N		140	340

※주민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B-2>에 의하면 농어민들이 새로운 농사기술이나 영농방법을 많이 배우는 곳으로 教師들은 첫째 “신문, 책”, (35.0%), 둘째 “농촌지도자”, (20.7%), 셋째 “자기경험”, (15.7%), 넷째 “학교”, (12.9%) 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은 첫째 “농촌지도자”, (32.6%), 둘째 “자기경험”, (29.4%), 셋째 “신문, 책”, (15.0%)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教師나 住民들은 농어민들이 새로운 농사기술이나 영농방법을 많이 배우는 곳으로 “농촌지도자”, “자기경험”, “신문, 책” 등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住民들은 “농촌지도자”와 “자기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농사기술이나 영농방법을 더 많이 배운다고 더 중요시하는 경향인 반면에 教師들은 “신문, 책”과 “학교”를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다.

(2) 地域社會의 實情으로 보아 가장 重要な 點

“근대화”라는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 여러 항목중 마을의 실정으로 보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3>

地域社會의 實情으로 보아 가장 重要的 點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공업화 내지 산업화		6.8	4.7	3.6	5.6	8.2	11.8
주민생활 수준 향상		26.8	30.2	29.5	28.2	39.7	37.1
행정제도의 민주화		4.8	4.7	6.3	5.1	1.4	2.8
민주적 자주성의 확립		10.8	7.5	12.5	10.5	4.7	11.2
중간계층의 성장 및 확대		8.0	5.8	9.8	7.9	3.4	3.7
국민교육 수준 향상		12.4	12.3	12.5	12.4	6.2	11.8
생활의 합리화 및 과학화		30.4	34.9	25.9	30.3	36.3	21.5
N		250	1.6	112	468	146	321

※ 학생전체와 주민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이다.

<표B-3> 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점으로써 學生들은 첫째 “생활의 합리화 및 과학화” (30.3%), 둘째 “주민생활 수준향상” (28.2%), 셋째 “국민교육 수준 향상” (12.4%) 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教師들은 첫째 “주민생활 수준 향상” (39.7%) 둘째 “생활의 합리화 및 과학화 (36.3%) 를 들고 있고, 住民들도 첫째 “주민생활 수준 향상” (37.1%), 둘째 “생활의 합리화 및 과학화 (21.5%), 셋째 “국민교육 수준 향상 및 공업화 내지 산업화” (11.8%) 로서 教師의 순위와 같다.

學生, 教師, 住民들은 모두 “생활의 합리화” 와 “주민생활 수준향상” 을 이 지역사회 의 실정으로 보아 중요한 점으로 공통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민생활 수준향상” 을 教師와 住民들은 중요시하는 경향이며, “생활의합리화 및 과학화” 를 教師와 學生은 더 중시하는것 같다.

(3) 地域社會·國家民族·人類世界中 關心은 어디

당신은 내가 자란 지역사회·국가민족·인류세계 세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4>

地域社會·國家民族·人類世界中 關心은 어디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내가 자란 교장		49.5	51.9	33.3	45.7	45.8	50.8
국가 민족		39.3	33.8	51.0	41.3	43.2	43.6
인류 세계		11.2	10.4	15.6	12.2	7.1	5.6
무 응답			3.9		0.8	3.8	
N		188	77	96	361	155	319

<표B-4>에 의하면 내가 자란 지역사회·국가민족·인류세계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냐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자란 고장”이 45.7%로 으뜸이고, 다음이 “국가민족” 41.3%, 그리고 “인류세계” 12.2%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도 “내가 자란 고장” (45.8%), 다음 “국가민족” (41.3%), 끝으로 “인류세계” (7.1%)이다.

住民들도 “내가 자란 고장” (50.8%), “국가민족” (43.6%) “인류세계” (5.6%)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學生·教師·住民들은 모두 첫째 “내가 자란 고장” 둘째 “국가민족” 셋째 “인류세계”의 순위로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住民들이 “내가 자란 고장”에 學生 教師들 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4) 돈 100萬원의 賢明한 使用法

당신은 생각하지 않던 돈 100만원이 생겼을 때 다음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5> 돈 100萬원의 賢明한 使用法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금이나 땅 같은 것을 산다		9.0	20.8	8.4	11.4	12.3	7.2
은행에 저축한다		36.2	28.6	36.4	34.6	32.9	41.7
자선사업을 한다		33.5	29.9	33.3	32.7	37.4	45.5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1.1	1.3	1.0	1.1	0.6	0.3
장사를 한다		18.1	19.5	17.7	18.3	7.1	5.3
기 타		2.1		3.1	1.9	9.7	
N		188	77	96	361	155	319

<표B-5>에 의하면 돈 100만원의 사용방법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은행에 저축한다”가 3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선사업을 한다”가 32.7% “장사를 한다”가 18.3%, 그리고 “금이나 땅같은 것을 산다”가 11.4%의 순위이다.

이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을 순위로 보면 “자선사업을 한다”가 (37.4%), “은행에 저축한다” (32.9%), “금이나 땅같은 것을 산다” (12.3%)이다.

住民들의 반응의 순위도 “자선사업을 한다” (45.5%), 은행에 저축한다” (41.7%), “금이나 땅같은 것을 산다” (7.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學生·教師·住民들은 모두 생각치 않던 돈 100만원이 생겼을 때 현명한 방법으로서 자선사업을 한다든가 은행에 저축한다는 것을 공통적 내용으로 들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으로서는 住民들은 學生과 敎師 보다는 더 자선사업을 한다와 은행에 저축한다는 것을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는 경향인 점이다. 學生과 敎師들은 금이나 땅, 즉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반응도 一할을 넘고 있고, 장사를 하겠다는 반응도 學生들의 경우 18.3%나 된다.

(5) 새마을을 開發하는데 第一 必要하다고 보는 點

당신은 새마을을 개발하는데 다음중 어느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6> 새마을을 開發하는데 제일 必要하다고 보는 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敎 師	住 民
수 송		2.6		3.1	2.1	2.1	4.8
생산품의 시장		10.8	25.0	6.1	12.7	17.0	12.5
새로운 농업기술		61.5	48.8	55.1	57.0	66.7	67.0
투자물자의 구입 가능성		4.1	3.6	9.2	5.3	4.9	8.9
자 극		21.0	22.6	26.5	22.8	9.2	6.7
N		195	84	98	377	141	312

※ 학생 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B-6>에 의하여 새마을을 개발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새로운 농업기술” (57.0%), 둘째 “자극” (22.8%), 셋째 “생산품의 시장” (12.7%) 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敎師들의 반응의 순위를 보면 첫째 “새로운 농업기술” (66.7%), 둘째 “생산품의 시장” (17.0%), 셋째 “자극” (9.2%)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住民들의 반응의 순위도 첫째 “새로운 농업기술” (67.0%), 둘째 “생산품의 시장” (12.5%), 셋째 “투자물자의 구입가능성” (8.9%)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學生·敎師·住民들은 모두 “새로운 농업기술” 과 “생산품의 시장” 을 새마을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공통내용으로 들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敎師나 住民들은 學生들 보다는 “새로운 농업기술” 에 대한 항목에 10%나 높은 반응을 내는 반면, 學生들은 “자극” 에 대한 항목에서 敎師·住民보다 14%나 높은 반응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6) 大學生이 政治 參與에 對한 贊成與否

당신은 대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政治參與의 贊成 與否 (教師 · 住民)

<표B-7>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다		1.3	14.7
좋은 일이라 본다		28.4	29.4
그저 그렇다		17.4	11.9
나쁜 일이라고 본다		33.5	18.8
아주 나쁜 일이라고 본다		5.8	7.2
무 응 답		13.5	17.9
N		155	319

<표B-7>에 의하면 대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을 보면 “나쁜 일이다”가 33.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좋은 일이다”가 28.4%,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17.4%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의 순위를 보면 “좋은 일이다” (29.4%), “나쁜 일이다” (18.8%), “아주 좋은 일이다” (14.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教師들은 전체 조사의 30% 가량은 대학생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56.7%는 “보통이거나” “나쁜 일”로 반응하는 반면, 住民들은 전체의 44.1%는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37.9%는 “보통”이거나 “나쁜일”로 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住民들이 教師들 보다 대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반응의 비율은 14.4%나 높다.

(7) 가장 强하게 親密感을 느끼는 集團

당신은 다음 어느 집단에 가장 강하게 친밀감을 느끼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8>

强하게 親密感을 느끼는 集團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가 문		6.4	9.1	6.3	6.9	5.8	6.6
같은 생활정도의 사람들		27.6	23.4	38.4	29.6	45.2	42.3
같은 나이의 친구들		44.1	55.8	37.5	44.9	26.4	21.9
같은 종교인		8.5	3.9	9.4	7.8	4.5	2.8
나이 많은 사람들		10.1	6.5	6.3	8.4	6.4	8.5
무 응 답		3.2	1.3	2.1	2.4	11.6	17.9
N		188	77	96	361	155	319

번기” (26.7%), “관혼상제 때” (17.0%) 로 나타나고 있다.

<표B-10> 이웃끼리 서로 돕는 일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관혼상제 때		36.3	17.0
농 번 기		12.3	26.7
환자가 생겼을 때		8.9	11.1
마을 공동일이 생겼을 때		42.5	45.1
N		146	288

따라서 教師나 住民들은 이웃끼리 서로 돕는 일은 공통적 내용으로서 마을 공동일이 생겼을 때와 농번기 및 관혼상제 때를 들고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다는 데에 教師나 住民들은 첫째번으로 들고 있지만, 教師들은 (36.3%) 住民들 (17.0%) 보다는 “관혼상제 때” 에 서로 돕는다고 반응하는 비율이 19.3%나 높은 반면에, 住民들 (26.7%) 은 教師들 (12.3%) 보다는 14.4%나 많이 농번기에 서로 돕는다고 반응하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9) 學生이 校外生活에서 일하고 있는 團體

당신은 교외생활에서 다음 어떤 모임에서 일하고 있는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1> 校外生活에서 일하고 있는 團體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청 년 회		20.2	23.4	14.6	19.7
4-H클럽		3.2	14.3	9.4	7.2
친목단체		31.4	28.6	28.1	29.9
생활 개선반		7.9	3.9	2.1	5.5
종교단체		22.8	20.7	14.6	20.2
기 타		1.1			0.4
무 응 답		13.2	9.1	31.3	17.2
N		188	77	96	361

<표B-11> 에 의하면 學生들이 교외생활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친목단체” 가 20.9%로 제일 많고, 다음이 “종교단체” 가 20.2%, 그리고 “청년회” 가 19.7%의 순위

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자의 30%는 교외생활에 있어서 “친목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각각 20%는 “청년회”나 “종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다음 어떤 단체에서 일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2> 現在 일하고 있는 團體 (敎師·住民)

항목	구분	
	敎 師	住 民
청년회	18.1	34.8
4-H클럽	2.6	12.5
친목단체	30.3	7.8
생활개선반	12.3	21.0
종교단체	7.7	2.5
무응답	29.0	21.3
N	155	319

<표B-12>에 의하면 敎師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친목단체”가 30.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년회” 18.1%, 그리고 “생활개선반”이 12.3%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의 순위를 보면 “청년회” (34.8%), “생활개선반” (21.9%), “4-H클럽” (12.5%)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년회”와 “생활개선반”을 일하고 있는 공통의 단체임을 알 수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敎師들은 “친목단체”에서 보다 많이 일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住民들은 청년회와 생활개선반에서 보다 많이 일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다.

(10) 校內生活에서 일하고 있는 團體

당신은 교내생활에서 다음 어떤 모임에서 일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3>에 의하면 학생들이 교내생활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친목모임”이 22.6%로 제일 많고, 다음이 “학술모임” “사회봉사 모임”이 각각 19.8%, 19.1%, 그리고 “종교모임”이 15.8%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내생활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있는 단체의 순위를 보면 첫째 친목단체, 둘째 학술모임이나 사회봉사모임, 셋째 종교모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校內에서 일하고 있는 團體

<표B-13>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학술 모임		25.5	12.8	13.0	19.8
친목 모임		17.3	20.9	37.0	22.6
종교 모임		15.9	18.4	13.0	15.8
운동 모임		7.7	7.9	11.0	8.5
사회봉사 모임		17.7	24.5	17.0	19.1
예술 모임		10.9	4.8	4.4	8.0
기 타		5.0	10.6	4.4	6.0
N		220	86	92	398

※ 학생 전체가 많은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11) 社會的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제일 重要한 것

당신은 社會적으로 이름을 떨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4> 社會的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重要한 것 (教師·住民)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직 업		11.2	14.8	13.4	12.5	13.1	14.8
학 별		4.2	1.2	2.0	3.1	2.2	8.7
돈		12.6	12.3	19.6	14.3	14.6	8.3
가 문		0.5	1.2		0.5	1.5	1.4
명 예		16.4	19.8	17.5	17.3	13.8	19.9
사 람 됨		55.1	50.6	47.4	52.3	54.7	46.8
N		214	81	97	392	137	276

※ 학생 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B-14> 에 의하면 社會적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사람됨 (52.3%), 둘째 명예 (17.3%), 셋째 돈 (14.3%), 넷째 직업 (12.5%)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의 순위를 보면 첫째 사람됨 (54.7%), 둘째 돈 (14.6%), 셋째 명예(13.8%), 넷째 직업 (13.1%)을 두는 반면, 住民들은 첫째 사람됨 (46.8%), 둘째 명예 (19.9%), 셋째 직업 (14.8%), 넷째 학별 및 돈 (8.7%, 8.3%)을 들고 있다.

따라서 學生·教師·住民들은 모두가 사람됨·명예·금전·직업을 社會적으로 이름을 떨

치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육과 관련되는 學生·教師들은 사람됨과 금전을 住民들 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고, 住民들은 학벌을 사회적 명성을 얻는데 더 중요시 하는 것 같다.

(12) 觀光客이 濟州에 미치는 影響

당신은 본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5>

觀光客이 本道에 미치는 影響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	13.4	17.4	11.2	13.7	10.3	7.6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31.1	29.1	29.6	30.3	38.4	31.6	
자연자원이 침해되고 있다	8.1	11.6	12.2	9.9	6.2	4.6	
고유문화가 소개되고 있다	29.7	22.1	27.6	27.5	26.0	41.8	
외래문화가 교류되고 있다	17.7	19.8	19.4	18.6	19.1	14.4	
N	209	86	98	393	146	263	

※ 학생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때문임

<표B-15>에 의하면 學生들은 본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가 30.3%로 제일 많고, 다음이 “고유문화가 소개되고 있다”가 27.5%, “외래문화가 교류되고 있다” 18.6%,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가 13.7%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의 순위를 보면,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38.4%)가 으뜸이고, 다음 “고유문화가 소개되고 있다” (26.0%), 외래문화가 교류되고 있다” (19.1%),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가 (10.3%)의 순위다.

반면, 住民들은 “고유문화가 소개되고 있다” (41.8%)가 으뜸이고, 다음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 (31.6%), “외래문화가 교류되고 있다” (14.4%),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 (7.6%)는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學生·教師·住民은 모두 같은 범위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學生과 教師들은 또한 같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教師와 學生들은 “외래문화가 교류되고 있다”와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는 항목에 住民들 보다 반응하는율이 높는데 대하여, 住民들은 教師 學生들 보다는 “고유문화가 소개되고 있다”는 반응은 15.0%나 높다.

教師들은 學生 住民들 보다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반응이 8.0%나 높다.

(13) 本道の 靑年들이 犯罪를 일으키는 原因

당신은 본도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6> 靑少年들이 犯罪를 일으키는 原因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나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43.8	38.5	44.0	42.8	49.2	42.9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1.9	14.3	15.0	13.1	10.4	16.6
일할 곳이 없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27.1	33.6	16.0	25.6	30.6	25.9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10.5	7.4	18.0	11.8	8.1	12.4
관광객들의 나쁜 영향 때문에		6.7	6.2	7.0	6.7	3.7	2.2
N		210	80	100	390	134	259

※ 학생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B-16>에 의하면 본도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나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가 42.8%로 수위를 차지하고, “일할 곳이 없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가 25.6%로 차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3.1%,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11.8%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의 순위를 보면, “나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49.2%), “일할 곳이 없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30.6%)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10.4%),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8.1%)로 나타나고 있으며, 住民들도 역시 “나쁜 친구 사귀”(42.9%), “일할곳이 없음”(25.9%), “배우지 못함”(16.6%), “부모님 공경심 부족”(12.4%)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住民·教師·學生들은 모두가 본도의 청소년들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나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둘째 일할 곳이 없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공통적 내용을 들고 있음과 동시에 같은 반응의 순위를 나타 내고 있다.

學生과 住民간에는 큰차가 없지만 특히 “나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와 “일할 곳이 없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의 원인은 教師들이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해서는 學生 住民들이 더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4) 閑暇한 時間을 利用해서 배우고 싶은 일

당신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배우거나 해봤으면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

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7>

閑暇한 時間을 利用해서 배우고 싶은 일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가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술부업		28.6	44.8	34.0	33.6	40.9	40.6
책 읽는 것		49.3	29.9	40.2	42.6	26.2	18.4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잡지를 읽는다		10.3	14.9	13.4	12.1	17.5	15.8
마을 일을 돕는다		5.4	5.7	8.2	6.2	13.9	22.8
친구 일을 돕는다		6.4	4.5	4.1	5.4	1.5	2.4
N		203	87	97	387	137	256

※ 학생 전체가 많은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B-17>에 의하면 學生들은 당연 “책읽는것” 이 42.6%로 으뜸이고, 다음이 “가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술부업” 33.6%, 그리고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잡지를 읽는다” 가 12.1%의 순위로 나타났다.

教師들의 반응의 순위는 “가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술부업” (40.9%) “책읽는 것” (26.2%),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잡지를 읽는것” (17.5%), “마을일을 돕는 것” (13.9%)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住民들도 “가정수입을 위한 기술부업” (40.6%), 마을일을 돕는다” (22.8%), “책 읽는것” (18.4%),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잡지를 읽는다” (15.8%) 로 반응하고 있다.

3자 전부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가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술부업” 과 “책읽는 것” 및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잡지를 읽는것” 등을 해보거나 배우고 싶은 공통적 내용으로 들고있다. 특히 學生들은 “책 읽는것” 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며, 教師와 住民들은 “가정수입을 위한 기술부업” 과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잡지를 읽는다” 를 중시하는듯하다. 그리고 教師는 學生들 보다 7.7%, 住民들은 教師들 보다 8.9%나 “마을일을 돕는다” 에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5) 당신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程度

당신은 이웃과 어느 정도 사이좋게 지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8>에 의하면 이웃과 어느 정도 사이좋게 지내느냐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알고 인사할 정도다” 가 42.1%로 으뜸이고, 다음이 “친한 편이다” 가 38.2%, “어려울때 서로 돕는다” 가 13.9%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程度

<표B-18>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알지 못하고 지낸다		4.3		8.3	4.4	1.3	2.5
알고 인사할 정도다		45.7	32.5	42.7	42.1	42.6	7.5
친한 편이다		33.0	53.2	36.5	38.2	31.0	30.7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15.4	11.6	12.5	13.9	21.9	40.4
무응답		1.6	2.6		1.4	3.2	18.8
N		188	77	96	361	155	319

教師들의 반응도 역시 “알고 인사할 정도” (42.6%), “친한 편” (31.0%)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21.9%) 로 學生과 같다. 한편, 住民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40.4%), “친한편” (30.7%) 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學生과 教師들은 이웃과 “알고 인사할 정도” 라는데에 住民들 보다 훨씬 높은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學生들은 “친한편” 에 높은 반응의 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學生들 (13.9%) 보다는 教師 (21.9%) 가, 教師들 보다는 住民 (40.4%) 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비율이 매우 높다.

(16) 라디오와 新聞中 어느쪽을 좋아하나

당신은 라디오와 신문 중 어느 쪽을 더 좋아 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19>

라디오와 新聞中 더 좋아하는 것은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라디오를 더 듣는다		22.9	29.8	28.1	25.8	25.8	28.8
신문을 더 본다		27.3	28.6	27.1	32.7	26.4	21.0
라디오·신문·잡지등을 더 좋아한다		35.6	36.4	42.7	37.7	35.5	30.4
아무것도 안 본다		0.5	3.6	1.0	1.4	0.6	0.3
무응답		3.7	1.3	1.0	2.4	11.6	19.4
N		188	77	96	361	155	319

<표B-19>에 의하면 學生들은 “라디오·신문·잡지등을 다 좋아한다” 가 37.7%로 제일 많고, 다음이 “신문을 더 본다” 가 32.7%, 그리고 “라디오를 더 듣는다” 가 25.8%의 순위로 나타났다.

教師들의 경우도 “라디오·신문·잡지 다 좋아한다” (35.5%), “신문을 더 본다”

(26.4%), “라디오를 더 듣는다” (25.8%) 로 學生의 순위와 같다. 한편, 住民들은 “라디오·신문·잡지” (30.4%), “라디오” (28.8%) “신문” (21.0%) 의 순위로 그범위는 같으나 순위가 좀 다르다.

따라서 學生과 教師들은 모두 신문과라디, 잡지등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런 경향은 教師들 보다 學生의 반응의 율이 높은 반면, 住民들은 “라디오” 를 보다 즐겨 듣는 것 같다.

(17) 한 國家나 事業에 運이 있어야 잘 된다는 生覺

한 국가나 한 사람의 사업에도 사람의 노력과 능력 이외에 운이라는 것이 있어야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20> 한 國家나 事業에 運이 있어야 잘 된다는 생각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물론 그렇다	19.0	16.9	17.6	18.3	18.1	17.2	
어느 정도 그렇다	50.0	59.7	63.5	55.6	43.2	35.4	
그렇지 않다	21.8	18.2	11.5	18.3	21.9	18.4	
모르겠다	5.3	2.6	5.2	4.7	3.2	4.7	
무응답	3.7	2.6	2.1	3.0	13.5	24.1	
N	188	77	95	361	155	319	

<표B-20>에 의하면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그렇다” 가 55.6%로 제일 많고, 다음이 “물론 그렇다” “그렇지 않다” 가 각각 18.3%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론 그렇다” 고 응답한 18.3%의 학생과, “어느정도 그렇다” 고 응답한 55.6%의 學生을 합하면 결국 73.9%의 學生들은 한 국가나 한 사람의 사업에도 사람의 노력과 능력 이외에 운이 있어야 잘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教師들의 경우를 보면, “물론 그렇다” 가 18.1%, “어느 정도 그렇다” 가 43.2%인데, 이 2종의 응답자를 합하면 결국 61.3%의 教師들이 운이 있어야 잘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住民들은 52.6%의 住民들이 긍정적으로 응답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즉 지성인들이 일반 서민들 보다 운이 있어야 잘 된다는 경향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住民들 (52.6%) 보다 教師들이 (16.3%), 教師들 보다는 學生들 (73.9%) 이 월등히 높은 편이 흥미있는 점이다.

(18) 住民이 새로운 것을 받아드리는 態度

당신은 住民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드리는 태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21> 새로운 것을 받아드리는 態度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매우 강하다고 본다		5.8	20.7
강하다고 본다		47.1	48.3
그저 그렇다		30.3	16.6
약하다고 본다		6.4	8.5
매우 약하다고 본다			0.3
무 응 답		10.3	5.6
N		155	319

<표B-21>에 의하면 住民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教師들이 반응을 보던 “강하다”가 47.1%로 으뜸이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30.3%, 그리고 “약하다”가 6.4%의 순위로 나타났다.

住民의 경우 “강하다”가 (48.3%), “매우 강하다” (20.7%), “그저 그렇다” (16.6%)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조사자의 69.0%의 住民들은 教師들 (52.9%) 보다 이 고장 住民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 드리는 태도가 강하다고 보는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다.

(19) 學閥이 出世하는데 차지하는 役割

당신은 학벌은 출세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22> 學閥이 出世하는데 차지하는 役割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教 師	住 民
매우 큰 역할을 한다		19.1	16.9	19.7	18.8	20.6	28.8
큰 역할을 한다		40.4	36.4	43.8	40.4	45.8	35.7
그저 그렇다		27.1	23.4	21.8	24.9	12.9	13.2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11.2	20.8	12.5	13.6	9.7	6.9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		1.1	1.6		1.1	0.6	1.2
무 응 답		1.1		2.1	1.1	10.3	14.1
N		188	77	96	351	155	319

<표B-22>에 의하면 學生들은 학벌은 출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가 4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24.9%, 그리고 “매우 큰 역할을 한다”가 18.8%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59.2%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39.6%는 “보통의 역할을 한다”거나 “별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다.

教師들은 “큰 역할”에 전체의 66.4%, 住民들은 64.5%가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教師나 (66.4%) 住民 (64.5%) 들의 3분의2 가량은 학벌은 출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學生 (59.2%) 들의 경우보다 6%나 높다.

(20) 당신이 願하는 生活樣式

당신은 어떠한 생활양식을 원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23> 願하는 生活樣式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서양식 생활양식을 원한다	34.0	42.8	36.5	36.6	17.4	14.4	
우리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원한다	43.6	42.8	39.6	42.4	50.3	58.6	
아무거나 원한다	14.4	11.7	15.6	14.1	14.9	7.8	
잘 모르겠다	4.3	2.6	4.1	3.9	3.8	2.5	
무응답	3.7		4.1	3.0	13.5	16.6	
N	188	77	96	361	155	319	

<표B-23>에 의하면 學生들은 “우리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원한다”가 42.4%로 제일 많고, 다음이 “서양식 생활양식을 원한다”가 36.6%, 그리고 “아무거나 원한다”가 14.1%의 순위로 나타났다.

教師의 경우도 “우리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원한다”가 50.3%로 으뜸, 다음 “서양식을 원한다”가 17.4%의 순위다.

住民들도 “고유한 생활양식” (58.6%), “서양식 생활양식” (14.4%)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學生 (36.6%) 들은 教師 (17.4%) 와 住民 (14.4%) 들 보다는 “서양식 생활양식”을 원하는 경향이 훨씬 높은 반면, 教師 (50.3%) 와 住民 (58.6%) 들은 “우리의 고유한 생활양식”을 원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런 경향은 住民들이 8.3%나 높다.

흥미있는 것은 學生들과 教師들의 “아무거나 원한다”는 반응이 각각 14.1%, 14.9%인데, 이는 양극 (兩極) 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1) 農漁村 生活의 將來

당신은 농어촌 생활이 장래 어떠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24> 農漁村生活의 將來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84.6	80.5	69.8	79.8	79.4	74.3
현재보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10.1	6.5	9.4	9.1	3.2	5.3
현재보다 못 할 것이다		1.1	3.9	4.1	2.4	1.3	1.5
잘 모르겠다		3.2	7.8	4.1	4.4	2.6	0.6
무응답		1.1	1.3	12.5	4.1	13.5	18.2
N		188	77	96	361	155	319

<표B-24>에 의하면 學生들은 농어촌 생활의 장래에 대하여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가 7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현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가 9.1%, 그리고 “현재보다 못 할 것이다”가 2.4%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 (361명) 중 79.8%인 288명은 농어촌 생활의 장래에 대하여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9.1%인 33명은 현재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과 2.4%인 9명만이 절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教師의 경우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가 79.4%인 123명은 낙관적 견해를, 3.2%인 5명은 “마찬가지”의 견해를, 1.3%인 2명은 “현재보다 못 할 것이다”라는 비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의 경우도,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74.3%)가 237명, “현재나 마찬가지” (5.3%)가 17명, “현재보다 못 할 것이다” (1.5%)가 5명으로 나타나, 그 순위가 같다.

특히 學生 (79.8%)들과 教師 (79.4%)들은 住民 (74.3%)들 보다는 농어촌 생활의 장래에 대해서 더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22) 現在보다 살기가 좋을 理由

단약 현재 보다 살기가 좋을 것이라면 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한다면, 무엇이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B-25>에 의하면 學生들이 보는 현재보다 살기 좋은 이유로서는 첫째 생활개선 (35.6%)과 농어업 소득증대 (35.3%), 둘째 문화향상 (18.6%), 셋째 주민들의 의욕

(8.6%) 을 들고 있다.

<표B-25>

現在보다 살기가 좋을 理由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농어민 소득증대		33.3	41.7	34.0	35.3	63.5	56.3
생활 개선		41.8	22.6	34.0	35.6	16.1	18.8
훌륭한 지도자			4.8	3.1	1.8	2.2	7.6
문화 향상		19.4	19.0	16.5	18.6	9.5	5.7
주민들의 의욕		5.2	11.9	12.4	8.6	8.7	11.6
N		201	84	97	382	137	277

※ 학생전체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때문임

이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농어민 소득증대 (63.5%), 둘째 생활개선 (16.1%), 셋째 문화향상 (9.5%), 넷째 주민들의 의욕 (8.7%) 을 들고 있다.

住民들은 첫째 농어민 소득증대 (56.3%), 둘째 생활개선 (18.8%), 셋째 주민들의 의욕 (11.6%), 넷째 훌륭한 지도자 (7.6%) 를 들고 있다.

따라서 3자 모두가 농어촌 생활이 현재보다 살기 좋을 이유로서 “농어민 소득증대” 를 첫번째, “생활개선” 을 두째로 공통으로 들고 있다.

學生들은 “생활개선” (35.6%)과 “문화향상” (18.6%)에서 教師·住民들 보다는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教師와 住民들은 “농어민 소득증대” 의 항목에서 높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教師들이 (63.5%) 住民들 (56.3%) 보다 높다.

住民들은 훌륭한 지도자 (7.6%) 와 住民들의 의욕 (11.6%) 에 대한 항목의 반응이 學生·教師들 보다 높다.

C. 새마을 運動에 關한 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濟州大學生의 自助, 自立, 協同精神과 그 弱한 理由, 農漁村住民의 自助, 自立, 協同精神과 그 弱한 理由, 都市住民의 自助, 自立, 協同精神, 그리고 새마을 運動의 關心度, 그 展開順位, 參與範圍, 都市의 새마을 運動으로서 展開되어야 할 일, 및 農村의 새마을 運動으로서 展開되어야 할 일 등을 그 說問으로 包含시켰다.

(1) 本校生の 自助精神

당신은 본교생들의 자조정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타의 내용으로는 지방대학이라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할려는 의욕을 상실한 것 같다 등을 들고 있다.

위의 자료로 분석하여 보면, 과반수의 學生들은 본교생들이 자조정신이 약한 이유로서 “주의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가하면, 4분의1의 學生들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다.

(3) 本校生の 自立精神

당신은 본교생들의 자립정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3> 本校生の 自立精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좋은 편이다		1.1	3.9	2.1	1.9
좋은 편이다		28.3	24.7	25.0	26.6
그저 그렇다		45.3	42.8	38.5	43.5
나쁜 편이다		20.8	19.5	25.0	21.6
매우 나쁜 편이다		4.3	6.5	4.2	4.7
무 응 답			2.6	5.1	1.7
N		188	77	96	361

<표C-3>에 의하여 본교생들의 자립정신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그저 그렇다” 가 43.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좋은 편이다” 가 26.6%, 그리고 “나쁜 편이다” 가 21.6%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좋은편” (1.9%) 과 “좋은 편” (26.6%) 을 합한 28.5%의 학생들은 본교생들의 자립정신을 “좋은 편” 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머지 43.5%는 “보통”, “나쁜 편” (21.6%) 과 “매우 나쁜편” (4.7%) 을 합한 26.3%는 “나쁜 편” 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편과 대차가 없다.

(4) 本校生の 自立精神이 弱한 理由

만약 본교생들의 자립정신이 약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4>에 의하면 본교생들이 자립정신이 약한 이유로서 學生들은 “남의 해주기만 바라기 때문에” 가 44.0%로 제일 많고, 다음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 22.1%,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 7.8%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C-4>

自立精神이 弱한 理由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남의 해 주기만 바라기 때문에		38.3	40.9	54.5	44.0
가난 하기 때문에		9.0	6.2	6.5	7.8
부유 하기 때문에		1.6	2.1		1.4
할 일이 없기 때문에		24.5	19.8	19.5	22.1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2.7	6.2	7.7	4.7
무 응 답		23.9	18.8	11.7	19.9
N		188	96	77	361

따라서 本校生들이 自立精神이 弱한 理由로서 첫째 “남의 해 주기만 바라기 때문에”, 둘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를 가장 뚜렷한 이유로 들고 있다.

(5) 本校生의 協同精神

당신은 본교생들의 협동정신은 어느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5>

本校生의 協同精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좋은 편이다		2.7	1.3	2.1	2.2
좋은 편이다		21.3	15.6	9.4	16.9
그저 그렇다		43.1	37.7	39.6	41.0
나쁜 편이다		23.9	44.2	39.6	32.4
매우 나쁜 편이다		8.5	1.3	9.4	7.2
무 응 답		0.5			0.3
N		188	77	96	361

<표C-5>에 의하면 본교생들의 協同精神에 대하여 學生들은 “그저 그렇다” 가 41.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나쁜 편” 이 32.4%, 그리고 “좋은 편” 이 16.9%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 중 41.0%의 學生들은 본교생들의 協同精神은 “보통” 으로 보고 있고, 39.6%는 “나쁜 편” 으로 보고 있는 反面, 약 20% 가량만이 “좋은 편” 으로 보고 있는 傾向이다.

(6) 本校生の 協同心이 弱한 理由

만약 協同心이 약하다던 그 理由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6> 協同心이 弱한 理由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분열심이 강하기 때문에		11.2	6.5	9.4	9.7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9.6	11.7	7.3	9.4
단체활동이 서툴기 때문에		20.2	29.9	15.6	21.0
희생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30.3	24.7	34.1	30.2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16.4	27.3	27.1	21.6
무 응 답		12.2		6.3	8.0
N		188	77	96	361

<표C-6>에 의하면 본교생들이 협동정신이 약한 이유로서 學生들은 “희생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30.2%로 제일 많고, 다음이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활동이 서툴기 때문에”가 각각 21.6%, 21.0%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本校生들이 協同精神이 弱한 理由로서는 分裂心이 강하거나 指導者가 없기 때문이기 보다는 첫째, “남을 위한 犧牲·奉仕의인 精神이 否足하기 때문에, 둘째 “人間關係를 重要視 않거나, 團體活動이 서툴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傾向이 뚜렷하다.

(7) 大學生이 보는 農漁村住民의 自助精神

당신은 農漁村住民들의 자조정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7> 農漁村住民의 自助精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강하다고 본다		17.0	15.5	15.6	16.3
강 하다고 본다		52.1	47.9	48.9	50.4
그저 그렇다		17.0	23.7	25.0	20.5
약하다고 본다		1.9	12.9	9.4	8.8
매우 약하다고 본다		1.1		1.0	0.8
무 응 답		5.8			3.0
N		188	77	96	361

<표C-7>에 의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自助精神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강하다”가 50.4%로 제일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20.5%, 그리고 “매우 강하다”가 16.3%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하다” (50.4%) 와 “매우 강하다” (16.3%) 를 합한 결과 즉, 66.7%의 學生들은 農漁村住民들의 自助精神은 “強하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20.5%는 “普通”, “弱하다” (8.8%) 와 “매우 弱하다” (0.8%) 를 합한 9.6%의 學生들은 弱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이 고장의 농어촌 주민들의 自助精神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반응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8> 이 고장의 自助精神 (教師·住民)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매우 좋은 편이다	5.1		24.5
좋은 편이다	49.0		50.5
그저 그렇다	28.4		19.1
나쁜 편이다	5.8		2.8
매우 나쁜 편이다	0.6		1.6
무 응 답	10.9		1.6
N	155		319

<표C-8>에 의하면 이 고장의 주민들의 自助精神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을 보면 위와 같은 분석방식에 따라서 조사자 전체의 54.1%는 “좋은 편” 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28.4%는 “보통,” 6.4%는 “나쁜 편”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을 보면 “좋은 편”으로 보는 주민은 전체의 75.0%이며, “보통”이 19.1%, “나쁜 편”이 겨우 전체의 4.4%이다.

따라서 교사들 (54.1%) 보다 住民들 (75.0%) 이 이 고장 주민들의 自助精神은 “좋은 편”으로 보는 傾向이 매우 높다.

또한, 만약 이 고장에서 自助精神이 弱하다면 그 理由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들의 반응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9>에 의하면 이 고장 주민들이 自助精神이 弱한 理由로서 教師들은 첫째 “가난하기 때문에” (26.5%), 둘째 “주위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17.4%), 셋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5.5%), 넷째 “게으르기 때문” (14.8%) 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가난하기 때문에” (25.4%), 둘째 “게으르기 때

문에" (25.1%), 세째 "주위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21.6%), 네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7.2%) 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順位와 範圍는 같음을 알 수 있다.

<표C-9> 自助精神이 弱한 理由 (教師·住民)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가난하기 때문에	26.5	25.4
게으르기 때문에	14.8	25.1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5.5	17.2
주위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17.4	21.6
질병 때문에	0.6	1.6
기 타	0.6	
무 응 답	24.5	9.1
N	155	319

특히 눈에 띄는 것은 教師·住民 二者 모두 "가난"을 공통으로 첫째로 들고 있는 점과, 住民들이 "게으름"에 대한 반응이 교사들 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는 點이다.

(8) 大學生이 본 農漁村住民의 自立精神

당신은 농어촌 주민들의 自立精神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0> 農漁村住民의 自立精神

구 분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강하다고 본다		22.9	16.9	19.8	20.7
강하다고 본다		54.8	48.1	43.8	50.4
그저 그렇다		13.3	19.5	26.0	18.0
약하다고 본다		5.8	11.7	7.3	7.4
매우 약하다고 본다		1.6			0.8
무 응 답		1.6	3.9	3.1	2.7
N		188	77	96	361

<표C-10>에 의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自立精神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강하다"가 5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매우 강하다"가 20.7%,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18.0%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자의 71.1%의 學生들은 이 고장 농어촌 주민들의 自立精神은 “強하다”고 반응하고 있고, 18.0%의 學生들은 “普通”, 8.1%의 學生들은 “弱하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이 고장의 自立精神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와 住民들의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C-11> 이 고장의 自立精神 (教師·住民)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매우 좋은 편이다	9.7	19.8
좋은 편이다	48.3	53.9
그저 그렇다	25.7	19.8
나쁜 편이다	5.1	2.5
매우 나쁜 편이다	0.6	0.6
무 응 답	10.6	3.4
N	155	319

<표C-11>에 의하면 이 고장 주민들의 自立精神에 대한 教師들의 반응을 보면, 전체 조사자의 58.0%의 교사들은 자립정신이 “좋은 편”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25.7%는 “보통” 5.7%는 “나쁜 편”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들은 전체의 73.7%는 “좋은 편”, 나머지 19.8%는 “보통”, 3.1%는 “나쁜 편”으로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고장 住民들의 自立精神은 教師 (58.0%) 들 보다 住民들 (73.3%) 이 “좋은 편”으로 보는 반응경향이 15.7%나 높다.

또한 당신은 이 고장의 自立精神이 弱하다면 그 理由는 무엇인가에 대한 調査에서 나타난 教師와 住民들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2> 自立精神이 弱한 理由 (教師·住民)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남의 해 주기만 바라기 때문에	25.2	30.4
가난하기 때문에	20.6	26.3
부유하기 때문에	0.6	3.4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14.2	19.1
할 일이 없기 때문에	8.4	5.3
무 응 답	31.0	15.4
N	155	319

<표C-12>에 의하면 이 고장 주민들의 自立精神이 弱한 理由에 대한 敎師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남의 해 주기만 바라기 때문에” (25.2%), 둘째 “가난하기 때문에” (20.6%), 셋째 “배우지 못 했기 때문에” (14.2%) 를 가장 뚜렷하게 들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의 반응도 첫째 “남의 해 주기만 바라기 때문에” (30.4%), 둘째 “가난하기 때문에” (26.3%), 셋째 “배우지 못 했기 때문에” (19.1%) 를 가장 현저하게 指目하고 있다.

따라서 敎師·住民들 二者 모두 自立精神이 弱한 理由에 대한 그 順位와 範圍는 같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住民들의 위의 3項目에 대한 반응의 比率는 敎사들보다 5~5.7%나 높다.

(9) 大學生이 본 農漁村住民의 協同精神

당신은 또 농어촌 주민들의 협동정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3> 農漁村住民의 協同精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강하다고 본다		16.5	12.9	13.5	14.9
강하다고 본다		51.6	55.8	38.5	49.0
그저 그렇다		20.2	22.1	27.1	22.4
약하다고 본다		9.0	9.1	16.7	11.1
매우 약하다고 본다		2.1		2.1	1.7
무응답		0.5		2.1	0.8
N		188	77	96	361

<표C-13>에 의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協同精神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강하다”가 49.0%로 제일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22.4%, 그리고 “매우 강하다”가 14.9%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자의 22.4%의 學生들은 농어촌 주민들의 協同精神은 “보통”, 12.8%는 “약하다”고 보는 반면, 63.9%는 “강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이 고장의 協同精神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의 반응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4>에 의하면 이 고장 주민들의 協同精神에 대한 敎師들의 반응을 보면, “좋은 편”이 40.6%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38.7%, 그리고 “나쁜 편”이 5.2%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은 “좋은 편” 이 48.3%로 으뜸이고, 다음 “그저 그렇다” 가 21.3%, 그리고 “매우 좋은 편” 이 16.6%의 순위이다.

<표C-14>

이 고장의 協同精神 (教師·住民)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매우 좋은 편이다		2.6	16.6
좋은 편이다		40.6	48.3
그저 그렇다		38.7	21.3
나쁜 편이다		5.2	8.5
매우 나쁜 편이다		0.6	1.3
무 응 답		12.3	4.1
N		155	319

따라서 教師들(43.2%)보다 住民들(64.9%)이 이 고장 住民들이 協同精神이 “높은 편” 으로 보는 반응의 比率이 21.7%나 높다.

또한, 이 고장의 協同心이 弱한 理由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들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5>

協同心이 弱한 理由 (教師·住民)

항 목	구 분	教 師	住 民
분열심이 강하기 때문에		7.1	12.5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14.8	10.7
단체활동이 서툴기 때문에		19.3	16.2
희생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20.6	38.8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12.9	6.5
무 응 답		25.2	15.3
N		155	319

<표C-15>에 의하면 教師들은 이 고장 住民들이 協同心이 弱한 理由로서 첫째 “희생정신이 부족” (20.6%), 둘째 “단체활동이 서툴다” (19.3%), 셋째 “지도자가 없어서” (14.8%), 넷째 “인간관계를 중요시 않아서” (12.9%) 를 들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은 첫째 “희생정신이 부족” (38.8%), 둘째 “단체활동이 서툴다” (16.2%), 셋째 “분열심이 강해서” (12.5%), 넷째 “지도자가 없어서” (10.7%) 를 들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教師側에서는 넷째의 人間關係를, 住民側

에서는 세계의 分裂心을 더 重視하는 것 외에, 그 順位와 範圍는 같다. 特別히 눈에 띄는 것은 住民들이 (38.8%) 敎師들 (20.6%) 보다 “犧牲精神이 不足” 이란 項目에 18.2%나 높은 반응을 보여주는 점이다.

(10) 大學生이 본 都市住民의 自助精神

당신은 도시주민들의 自助精神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6> 都市住民의 自助精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강하다고 본다		3.7	2.6	4.2	3.6
강하다고 본다		22.9	15.6	24.0	21.6
그저 그렇다		33.5	37.7	33.3	34.3
약하다고 본다		35.1	35.1	29.2	33.5
매우 약하다고 본다		3.7	9.1	7.3	5.8
무 응 답		1.1		2.1	1.1
N		188	77	96	361

<표C-16>에 의하면, 도시주민들의 自助精神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그저 그렇다”가 34.3%로 으뜸이고, 다음이 “약하다”가 33.5%, 그리고 “강하다”가 (21.6%)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강하다” (3.6%)와 “강하다” (21.6%) 들을 합한 결과 즉, 25.2%의 學生들은 도시주민들의 自助精神에 대해서 “강하다”고 보는 반면, 34.3%는 “보통”, “약하다” (33.5%)와 “매우 약하다” (5.8%)를 합한 39.3%는 “약하다”고 보고 있다.

(11) 大學生이 본 都市住民의 自立精神

당신은 도시주민의 自立精神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7>에 의하면 도시주민들의 自立精神에 대해서 “강하다”가 43.2%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28.5%, 그리고 “약하다”가 14.7%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서와 같은 분석방식에 따라서 조사자 전체의 53.4%의 學生들은 도시주민들의 自立精神에 대해서 “강하다”고보는 반면, 나머지 28.5%는 “보통”, 16.9%는 “약하다”고 반응하고 있다.

<표C-17> 都市住民의 自立精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강하다고 본다		8.0	9.1	15.6	10.2
강하다고 본다		43.6	39.0	45.8	43.2
그저 그렇다		29.8	32.5	22.9	28.5
약하다고 본다		15.9	14.2	12.5	14.7
매우 약하다고 본다		1.6	2.6	3.1	2.2
무 응 답		1.1	2.6		1.1
N		188	77	96	361

(12) 大學生이 본 都市住民의 協同精神

당신은 또 도시주민들의 協同精神은 어느정도라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8> 都市住民의 協同精神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강하다고 본다		1.1	1.3	1.0	1.1
강하다고 본다		4.8	3.9	5.1	4.7
그저 그렇다		24.5	15.6	29.2	23.8
약하다고 본다		52.1	59.7	39.6	50.4
매우 약하다고 본다		17.0	19.5	25.0	19.7
무 응 답		0.5			0.2
N		188	77	96	361

<표C-18>에 의하면 도시주민들의 協同精神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을 보면, “약하다”가 5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가 23.8%, 그리고 “매우 약하다”가 19.7%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주민들의 協同精神이 “강하다”고 보는 學生은 전체 조사자의 겨우 5.8%뿐이며, 나머지 23.8%는 “보통”, 70.1%는 “약하다”고 반응하고 있다.

(13) 새마을 運動에 대한 關心度

당신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19> 새마을 운동에 대한 關心度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15.9	29.9	19.8	19.9
관심을 갖고 있다		57.4	50.6	52.1	54.6
그저 그렇다		12.8	7.8	16.7	12.7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10.6	11.7	8.3	10.3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1.6		3.1	1.7
무응답		1.6			0.8
N		188	77	96	361

<표C-19>에 의하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새 마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5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가 19.9%, “그저 그렇다”가 12.7%,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가 10.3%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자의 “매우 관심” (19.9%) 과 “관심” (54.6%) 의 둘을 합한 결과 즉 74.5%의 學生들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나머지 12.7%는 “보통의 관심” 을 갖고, “별로” (10.3%) 와 “전혀” (1.7%) 를 합한 12.0%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보아, “보통의 관심” (12.78%) 과 “별로 관심이 없는자” (12.0%)를 합한 결과 즉, 24.7%의 學生들도 “관심 者” (74.5%)들의 動態에 따라서는 전혀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고는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指導方案의 摸索이 必要하다.

(14) 새마을 運動의 關心은 어디에서

만약 당신이 새 마을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서 그런 관심을 갖도록 되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20> 關心은 어디에서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가 정		9.0	6.5	9.3	8.6
학 교		11.4	5.2	5.1	8.6
사 회		41.0	41.6	40.6	41.6
매스·미디어 (메스·콤)		35.1	36.4	40.6	36.3
기 타		2.1	3.9	4.2	3.0
무응답		1.1	6.5		1.9
N		188	77	96	361

<표C-20>에 의하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새 마을 운동에 대한 關心은 어디에서 갖게 되었느냐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사회” (41.6%), 둘째 “매스·콤” (36.3%), 셋째 “가정·학교” (8.6%) 를 들고 있다.

따라서 學生들의 대부분은 到處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 마을事業을 보거나, 新聞·雜誌·放送등을 보고 들음으로써 關心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 새마을 運動의 展開順位

당신은 새 마을운동은 어디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21> 새마을 運動의 展開順位

항 목	구 분	法	農	水	全 體
농촌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		24.5	24.7	28.1	25.5
도시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		6.3	11.7	10.4	8.6
농촌과 도시 병행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63.8	62.3	60.4	62.7
모르겠다		2.7	1.3	1.0	1.9
무 응 답		2.7			1.4
N		188	77	96	361

<표C-21>에 의하면 새 마을운동은 어디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농촌과 도시병행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가 62.7%로 제일 많고, 다음이 “농촌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 가 25.5%, 그리고 “도시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 가 8.6%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자의 62.7%의 學生들은 현재 진행중인 새 마을운동은 “농촌과 도시 병행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고 반응하고 있고, 4분의1은 “농촌에서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 고 반응하고 있다.

(16) 새마을 運動의 參與範圍

새 마을운동의 참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學生들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22>에 의하면 새 마을운동의 참여범위에 대해서 “남녀노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가 80.9%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남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가 16.9%의 순위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 마을운동에는 男女老少 할것 없이 參與하는 것이 成功的이라고 보는 學生은 전체의 80.9%로 절대다수인 點으로 미루어 보아, 地位에 따라 年수에 따라, 能力에 따라,

性別에 따라 맡은바 責任과 義務를 誠實히 이행할 때, 그야말로 밝고 맑은 明朗한 福祉社會를 建設할 수 있다는 健全한 思考方式을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표C-22> 새마을 運動의 參與範圍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남자만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1.1		1.0	0.8
여자만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1.1			0.4
남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16.5	15.6	18.7	16.9
남녀노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80.9	84.4	78.1	80.9
무 응 답		0.5		2.1	0.8
N		188	77	96	361

(17) 都市의 새마을 運動으로서 展開되어야 할 일

당신은 도시에서의 새 마을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가지 적어보라는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23> 都市의 새마을 運動으로서 展開되어야 할 일

항목	구분	대 학 생
도시 미화		13.5
새마을 정신의 확립		11.7
검소한 생활		5.0
퇴폐풍조 일소		4.8
신 생활 운동		3.9
도로정리 및 포장		3.3
하수도 개량 및 신설		2.8
새로운 가치관 확립		2.1
가정의례 준칙 준수		2.1
가로수 가꾸기		1.8
공해 방지		1.8
고운말 쓰기		1.4
Smile 운동		1.4
변소개량		1.4
공중도덕 준수		1.2
기 타		15.4
무 응 답		26.9
N		722

<표C-23>에 의하면 도시의 새 마을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는 雜多한 其他가 많으나, 뚜렷한 것으로는 첫째 都市美化 (13.5%), 둘째 새마을 精神의 確立(11.7%), 세째 儉素한 生活 (5.0%), 네째 頹廢風潮 一掃 (4.8%)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學生들은 都市의 새마을 事業으로서는 環境美化, 自助·自立·協同精神의 具現, 분수에 맞는 生活, 社會의 非生產的·非合理的·非能率의인 要素를 除去하고 生產的이고 能率의인 要素를 伸張發展시켜 그야말로 維新的인 氣風을 振作시켜 福되고 明朗한 社會의 建設을 意圖하는바, 그들의 健全한 精神姿勢를 높이 評價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拍手喝采를 아끼지 않으리라 여진다. (비록 반응이 전체의 35.0%이긴 하지만)

(18) 農村의 새마을 運動으로서 展開되어야 할 일

당신은 농촌에서의 새 마을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가지 적어보라는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C-24> 農村의 새마을 運動으로서 展開되어야 할 일

항목	구분	대 학 생
농로확장 및 포장		11.9
새마을 정신의 확립		8.2
신 생활 운동		7.5
과학적인 기구에 의한 영농방법 개선		6.8
소득증대 방안 연구		6.0
지붕 개량		5.8
변소 개량		4.2
문화시설 보급		2.6
마을환경 미화		2.6
가정의례 준칙 준수		2.5
새로운 가치관 확립		2.3
수도 시설		2.2
구습 타파		2.1
전기·전화시설		2.1
퇴폐풍조 일소		1.1
기 타		16.3
무 응 답		15.8
N		722

<표C-24>에 의하면 농촌에 있어서 새 마을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할 事業으로서 學生들은 雜多한 其他를 除하면 가장 뚜렷한 것으로 첫째 農路擴張 (11.9%), 둘째 새마을 精神의 確立(8.2%), 세째 新生活 運動(7.5%), 네째 科學的인 機具에 依한 營農

方法改善 (6.8%), 다섯째 所得增大 方案 研究 (6.0%), 여섯째 지붕改良 (5.8%)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學生들은 농촌의 새 마을사업으로서 自助·自立·協同精神인 새마을 精神의 確立과 浪費의이고 虛禮虛飾을 탈피하기 위한 新生活 運動의 展開는 물론, 살기좋은 내 고장 내 農村을 만들기 위하여 輸送關係를 포함한 農路擴張, 科學的인 機具에 의한 營農方法, 農漁民 所得增大, 지붕改良 등을 들고 있는바, 農漁村 近代化를 促進시키는 健全한 方案으로 여기는 바, 農漁村 새 마을 事業의 內容으로 많은 參考가 되리라 여기는 바이다.

D. 새마을 指導者에 關한 問題

이 問題 領域에서는 새마을 指導者의 學歷, 專攻分野, 性格, 出身地域, 나이, 數, 새마을 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條件 및 理想的인 새마을 指導者 등에 關한 設問을 包含시켰다.

(1) 새마을 指導者의 學歷

새마을 지도자의 학력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1>

새마을 指導者의 學歷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대학 졸업자	19.1	28.6	25.0	22.7	11.6	8.5	
고등학교 졸업자	37.8	23.4	29.1	32.4	42.6	38.2	
중학교 졸업자	1.6	2.6	1.0	1.7	3.8	6.9	
국민학교 졸업자	1.1		1.0	0.8	1.3	4.1	
학력에 무관	38.3	44.2	43.8	41.0	32.2	42.3	
무응답	2.1	1.3		1.4	8.4		
N	188	77	96	361	155	319	

<표D-1>에 의하면 새마을 지도자의 학력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학력에는 관계 없다”가 41.0%로 제일 많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자”로 32.4%,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教師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 42.6%, “학력에 무관” 32.2%, “대학 졸업자” 11.6%이다.

住民의 경우는 “학력이 무관” 42.3%로 대학생의 전체와 비슷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38.2%, “대학 졸업자” 8.5%의 순으로, 그 순위는 學生들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새마을 지도자의 학력으로서는 별로 학력을 중시하고 있지 않은 경향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 정도가 알맞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2) 새마을 指導者의 專攻分野

새마을 지도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2> 새마을 指導者의 專攻分野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		26.6	7.8	16.7	19.9	18.7	6.9
농과계통을 졸업한 사람		5.8	22.1	4.2	8.9	14.2	15.7
수산업을 배운 사람		0.5	1.3	1.0	0.8		1.3
농·수산업을 아는 사람		11.7	6.5	17.7	12.1	14.2	11.6
사람을 잘 통솔하는 사람		55.3	62.3	52.1	56.0	45.2	63.6
무 응 답				8.3	2.2	7.7	0.9
N		188	77	96	361	155	319

<표D-2>에 의하면 새마을 지도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을 잘 통솔하는 사람”이 5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 19.9%, 그리고 “농·수산업을 아는 사람”이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教師의 경우는 “사람을 잘 통솔하는 사람” 45.2%,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 18.7%, “농과계통을 졸업한 사람” “농·수산업을 아는 사람”이 각각 14.2%의 순이다.

住民의 경우도 “사람을 잘 통솔하는 사람”이 63.6%, “농과계통” 15.7%, “농·수산업”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마을 지도자의 전공분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잘 통솔하는 사람을 들고 있고, 學生·教師들은 사회과학을 둘째번으로 두는데 반하여, 住民들은 농과계통을 둘째번으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새마을 指導者의 性格

새마을 지도자의 성격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3>에 의하면 새마을 지도자의 성격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64.5%로 제일 많고, 다음이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17.2%,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教師의 경우도 “남을 위하는 사람” 58.1%, “존경을 받는 사람” 18.7%,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 14.2%의 순이다.

<표D-3>

새마을 指導者의 性格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힘이 센 사람			1.3	2.1	0.8		0.9
말을 잘 하는 사람		0.5	1.3	1.0	0.8	0.6	0.6
존경을 받는 사람		17.5	14.3	16.7	16.6	18.7	9.1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		16.5	19.5	16.7	17.2	14.2	17.9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65.4	63.6	63.5	64.5	58.1	71.5
무 응 답						8.4	
N		188	77	96	361	155	319

住民의 경우도 “남을 위하여 사람” 71.5%,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 17.9%, “존경을 받는 사람” 9.1%의 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새마을 지도자의 성격으로서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첫째번으로 들고 있으며,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둘째번으로 들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항목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學生·教師들보다 높게 보여주고 있다.

(4) 새마을 指導者의 出身 地域

새마을 지도자의 출신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4>

새마을 指導者의 出身地域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제주에서 자라난 사람		61.2	58.4	38.5	54.6	56.1	56.7
육지에서 자라난 사람			2.6	5.2	1.9		0.6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		1.1		2.1	1.1		1.6
출신지역과는 관계없다		33.5	37.7	52.1	39.3	32.9	40.4
무 응 답		4.2	1.3	2.1	3.0	11.0	0.6
N		188	77	96	361	155	319

<표D-4>에 의하면 새마을 지도자의 출신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제주에서 자라난 사람” 이 54.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출신지역과는 관계 없다” 가 39.3%의 순으로 나타났다.

教師·住民의 경우도 “제주에서 자라난 사람” 이 각각 56.1%, 56.7%로 제일 높은 반응을 보이고, 다음이 “출신지역과는 관계없다” 가 각각 32.9%, 40.4%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다라서 전반적으로 반수 이상은 새마을 지도자의 출신지역, 나머지는 출신지역과는 관계 없다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새마을 指導者의 나이

새마을 지도자의 나이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5> 새마을 指導者의 나이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20 대		6.4	11.7	9.3	8.3	0.6	2.8
30 대		58.5	51.9	45.8	53.7	48.4	48.0
40 대		24.5	22.1	25.0	24.1	21.9	22.8
50 대			5.2	9.3	3.6	1.9	0.9
60 대		1.1			0.6	0.6	
나이에 무관		9.6	9.1	10.4	9.7	18.0	25.4
무 응답						8.4	
N		188	77	96	361	155	319

<표D-5>에 의하면 새마을 지도자의 나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30대”가 53.7%로 반수를 넘고, 다음이 “40대”가 24.1%,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다”가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教師·住民의 경우도 “30대”가 각각 48.4%, 48.0%로 제일 많고, 다음이 “40대”가 21.9%, 22.8%. 그리고 “나이에 무관”이 각각 18.0%, 25.4%의 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아, 새마을 지도자의 연령으로서는 30대를 첫째번으로, 40대를 둘째번으로 들고 있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이에 관계 없다는 항목에 대한 住民들이 반응은 學生·教師들 보다 높다.

(6) 새마을 指導者의 數

새마을 지도자의 수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6>에 의하면 새마을 지도자의 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한 마을에 많을수록 좋다”가 49.6%로 반수이고, “한 마을에 적을수록 좋다”가 37.0%의 순이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教師의 경우 “한 마을에 많을수록 좋다”가 46.5%, “한 마을에 적을수록 좋다”가 38.7% 순이고, 住民의 경우 “한 마을에 많을수록 좋다”가 59.2%, “한 마을에 적을수록 좋다”가 29.2% 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수는 새마을 지도자의 수는 한 마을에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표D-6> 새마을 指導者의 數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한 마을에 많을수록 좋다		52.7	48.1	43.8	49.6	46.5	59.2
한 마을에 적을수록 좋다		35.6	38.9	38.5	37.0	38.7	29.2
잘 모르겠다		9.6	9.1	15.6	11.0	5.1	5.6
무응답		2.1	3.9	2.1	2.4	9.6	5.9
N		188	77	96	361	155	319

특히, 한 마을에 많을수록 좋다는 항목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은 學生·教師들 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適當한 指導者의 數

만약 지도자 수가 많을수록 좋다면 몇 명이 적당한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7> 適當한 指導者의 數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한 마을에 2명 이상		28.2	27.3	26.0	27.4	20.6	33.5
한 마을에 3명 이상		25.5	36.4	30.2	29.1	31.6	24.8
한 마을에 4명 이상		5.8	5.1	3.1	4.9	3.2	7.8
한 마을에 5명 이상		15.4	11.7	10.4	13.3	14.2	20.4
무응답		25.0	19.5	30.2	25.2	30.3	13.5
N		188	77	96	361	155	319

<표D-7>에 의하면 지도자 수가 많을수록 좋다면 몇 명이 적당한가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한 마을에 3명 이상” 이 2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한 마을에 2명 이상” 이 27.4%, 그리고 “한 마을에 5명 이상” 이 13.3%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 경향은 教師의 경우, “3명 이상” (31.6%), “2명 이상” (20.6%), “5명 이상” (14.2%) 의 순위이고,

住民의 경우 “2명 이상” (33.5%), “3명 이상” (24.8%), “5명 이상” (20.4%) 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의 수로서는 2~3명이 적당한 수로 보는 경향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學生·敎師들은 3명 이상을 적당한 수로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고, 住民들은 2명 이상을 중요시 하는 경향으로 보는 것 같다.

(8) 새마을 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條件

새마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8> 새마을 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條件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敎師	住民
과 단 성		14.3	15.5	10.9	13.7	12.8	9.5
정 직 · 공 정 성		17.9	11.9	15.8	16.1	27.0	26.2
애 국 · 애 족		14.3	17.9	21.8	16.9	17.7	20.9
지 식 · 판 단 력		33.0	39.3	33.7	34.5	20.5	20.3
겸 손 · 대 중 적		20.5	15.5	17.8	18.8	22.0	23.1
N		224	84	101	409	141	325

※ 합계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때문임

<표D-8>에 의하면 새마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學生들의 반응을 보면 “지식·판단력”이 34.5%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겸손·대중적”이 18.8%, 그리고 “애국·애족”, “정직·공정성”이 각각 16.9%,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敎師·住民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정직·공정성”이 각각 27.0%, 26.2%, 둘째 “겸손·대중적”이 각각 22.0%, 23.1%, 셋째 “지식·판단력” 20.5%, 20.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는 學生들은 “지식·판단력”을 훨씬 중요시하는 경향이고, 敎師·住民들은 “정직·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理想的인 새마을 指導者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D-9>에 의하면 學生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왕성한 개발의욕이있는 사람”이 4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지도자로서 住民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38.2%, 그리고 “지도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8%의 순으로 나타

났다.

<표D-9>

理想的인 새마을 指導者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		14.3	9.1	5.1	10.8
지도자로서의 왕성한 개발의욕이 있는사람		45.7	45.5	50.0	46.8
지도자로서의 주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		38.3	41.6	35.4	38.2
기 타		1.6	3.9	8.3	3.9
무 응 답				1.0	0.3
N		188	77	96	361

따라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지도자 보다는, 住民의 신망을 겸한 왕성한 개발의욕이 있는 지도자가 學生들에게는 보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듯 하다.

이에 대한 教師·住民들이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10>

理想的인 새마을 指導者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指導者로서의 能力이 있는 사람		3.2	9.1
指導者로서의 能力과 旺盛한 開發意慾이 있는사람		5.1	16.0
指導者로서의 能力과 旺盛한 開發意慾·信賴받는사람		84.5	74.9
무 응 답		7.1	
N		155	319

<표D-10>에 의하면 教師나, 住民들은 “지도자로서 능력과 왕성한 개발의욕 및 住民의 신망을 얻는 지도자”가 이상적인 새마을 지도자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74.9%) 들 보다 教師들의 반응(84.5%)은 더욱 높게 나오고 있다.

한편 당신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하고 의논 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와 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D-11>에 의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논 상대자에 대해서, 教師들의 반응을 보면 “마을유지”가 3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교교사”가 14.8%, 그리고 “재력이 있는사람”이 12.9%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민의 경우는 첫째 “마을이장” (38.6%), 둘째 “마을 유지” “재력이 있는 사람” (24.1%)의 순위다.

따라서 教師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을유지와 학교교사와 더 의논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住民들은 마을 이장과 재력이 있는 사람과 더 상의 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표D-11>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議論 相對者

항목	구분	敎	師	住	民
마을 이장			11.0		38.6
지서 주임					1.3
마을 유지		31.6			24.1
학교 교사		14.8			1.3
마을담당 공무원		8.4			8.8
재력이 있는 사람		12.9			24.1
무 응 답		21.3			1.8
N		155			319

이러한 반응경향은 현재 이러한 사람이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 卒業後 部落發展 및 志向性에 關한 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部落發展을 위한 寄與度, 資格, 都市에의 志向性 및 그 理由등을 中心으로 說問을 作成해 보았다.

1. 部落發展

(1) 大學生이 본 地域住民이 걸고 있는 部落發展에 대한 期待度

당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대학생에게 부락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期待를 걸고 있다고 생각 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1> 대학생이 본 地域住民이 걸고있는 部落發展에 대한 期待度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크게 기대를 건다		10.6	18.2	16.7	13.8
크게 기대를 건다		34.6	23.4	17.7	27.9
그저 그렇다		35.1	40.3	36.5	36.6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		16.5	16.8	26.0	19.1
전혀 기대를 걸지 않는다		2.1	1.3	3.1	2.2
무 응 답		1.1			0.4
N		188	77	96	361

<표E-1>에 의하면 “그저 그렇다”가 36.6%로 가장 많고, 다음이 “크게 기대를 건다”가 27.9%, 그리고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가 19.1%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크게” (13.8%)와 “크게” (27.9%)를 합한 전체의 41.7%의 學生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大學生에게 “크게 期待를 걸고 있다”고 보며, 나머지 36.6%는 “보통”, “별로” (19.1%)와 “전혀” (2.2%)를 합한 전체의 21.3%는 “별로 期待를 걸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學生들 스스로가 보는 지역주민들이 대학생에게 걸고 있는 부락발전에 대한 期待의 반응의 비율은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학생의 비율보다 2배나 된다.

이에 대하여, 당신은 대학생에게 부락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期待를 걸고 있는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2> 現在 住民이 大學生에게 部落發展을 위한 期待度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매우 크게 기대를 건다	17.4	38.6
크게 기대를 건다	47.1	37.9
그저 그렇다	20.0	10.3
기대를 걸지 않는다	5.2	4.1
전혀 기대를 걸지 않는다		1.6
무 응 답	10.3	7.5
N	155	319

<표E-2>에 의하면 教師들의 반응을 보면, 전과 같은 식에 따라 전체의 64.5%의 教師들은 “크게 기대를 건다”고 반응하고 있고, 나머지 20.0%는 “보통”, 5.2%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에 대한 住民의 경우는 전체의 76.5%는 “크게 기대를 건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10.3%는 “보통”, 5.7%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教師 (64.5%)와 住民 (76.5%) 兩者 모두 部落發展을 위하여 大學生에게 期待를 걸고 있는 比率이, 大學生들이 생각하는 것 (41.7%)보다는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特히, 이에 대한 住民들의 反應은 교사들보다 12%나 높은 點이 눈에 띈다.

(2) 地域社會 發展에 寄與는 어떤 資格으로

당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어떤 資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3>에 의하면 “教育者”가 35.5%로 가장 많고, 다음이 “指導者” “人格者”가

각각 19.9%, 그리고 “技術者”가 16.3%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E-3> 地域社會發展에 寄與는 어떤 資格으로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지도자		17.0	28.6	18.8	19.9
기술자		4.2	26.0	32.3	16.3
인격자		18.1	22.1	21.8	19.9
교육자		53.2	14.3	16.7	35.2
학 자		6.4	9.1	8.3	7.5
무응답		1.1		2.1	1.1
N		188	77	96	361

따라서 대다수의 學生들은 學者, 技術者보다는 教育者, 指導者, 人格者의 資格으로서 地域社會發展에 寄與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신이 만약 대학생에게 期待를 건다면 어떤 資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反應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4> 地域發展을 위하여 大學生에게 기대하는 資格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지도자		31.6	46.7
기술자		16.1	14.4
인격자		25.2	14.4
교육자		10.3	10.3
학 자		2.6	4.1
무응답		14.2	10.0
N		155	319

<표E-4>에 의하면 教師의 반응을 보면 첫째 “指導者”(31.6%), 둘째 “人格者”(25.2%), 셋째 “技術者”(16.1%), 넷째 “教育者”(10.3%)를 들고 있다.

住民의 경우도 첫째 “指導者”(46.7%), 둘째 “技術者” “人格者”(14.4%), 셋째 “教育者”(10.3%)를 들고 있다.

따라서 兩者 모두 그 범위와 순위는 같고, “指導者”의 資格으로서 地域社會의 發展에 寄與해 주기를 바라는 반응이 學生들 보다 많은데, 特히 이에 대한 반응은 住民들이 훨씬 높다. 教師들은 “人格者” 면에서도 약간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大學卒業後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도움

당신은 대학졸업후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얼마나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5> 大學卒業後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寄與度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매우 잘 도와줄려고 한다		17.0	22.1	11.5	16.6
잘 도와 줄려고 한다		66.5	64.9	63.5	65.4
그저 그렇다		13.3	11.7	18.8	14.4
별로 도우려 하지 않는다		2.1	1.3	4.1	2.4
전혀 도우려 하지 않는다					
무 응 답		1.1		2.1	1.1
N		188	77	96	361

<표E-5>에 의하면 “잘 도와 줄려고 한다”가 65.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매우 잘 도와 줄려고 한다”가 16.6%,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14.4%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16.8%만이 大學卒業後에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보통”, 또는 “별로 도와 줄려고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일 뿐, 나머지 82.0%의 絕對多數의 學生들은 “잘 도와주려고 한다”는 意思表示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당신은 현재 대학졸업생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얼마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6> 현재 大學卒業生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얼마나 도와주고 있나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매우 잘 도와주고 있다		5.2	15.0
잘 도와주고 있다		30.3	32.3
그저 그렇다		27.7	26.0
도와주고 있지 않다		22.7	7.2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다		1.9	3.8
무 응 답		12.2	15.7
N		155	319

<표E-6>에 의하면 教師들은 전체의 35.5%는 “잘 도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52.3%는 “보통으로 도와주고 있거나·별로 도와주고 있지않다”고 반응하고 있다.

住民의 경우, 전체의 47.3%는 “잘 도와주고 있다” 고 보고 있는 반면, 나머지 37.0%는 “보통” 이거나 “별로 도와주고 있지 않다” 고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大學生 전체 조사대상자의 82.0%는 卒業後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잘 도와주겠다고 反應하고 있으나, 實際 大學卒業生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도와주고 있다는 반응은 教師는 35.5%, 住民은 47.3%로서 학생의 비율과 현격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당신네 마을에는 대학을 졸업한 大學生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몇 명이나 일하고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7> 部落發展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大學卒業生 數 (教師·住民)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1명 정도		23.9	23.5
2명 정도		15.5	20.6
3명 정도		17.4	13.1
5명 정도		9.7	4.3
5명 이상		11.6	10.7
무응답		21.9	27.6
N		155	319

<표E-7>에 의하면 教師들은 “1명 정도” (23.9%), “3명 정도” (17.4%), “2명 정도” (15.5%), “5명 이상” (11.6%)의 순위이고, 住民들은 “1명 정도” (23.5%), “2명 정도” (20.6%), “3명 정도” (13.1%), “5명 이상” (10.7%)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6할 가량의 教師 (56.8%)와 住民 (57.2%) 들은 大學을 졸업한 大學生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1~3명이 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의 大少에 따라서, 特性에 따라서, 能力에 따라서 그 人員數에 差異가 있다고 보겠지만, 2~3명을 가지고서는 谷 領域에서 指導者로서의 役割을 다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보겠으며, 大學生들의 能力과 資格에 따른 地域的 按配가 이루어 질 때 農漁村 近代化는 促進되리라 여기는 바이다.

(4)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일 한다면 어느 程度로

당신이 만약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일한다면, 어느 정도로 발전시키고 싶은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8>에 의하면 學生들은 社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일 한다면 “살기좋은 정도로” 발전시킨다가 4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정도”가 24.7%,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도”가 19.4%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E-8> 地域社會發展을 어느 程度로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살기 좋은 정도로		53.2	38.8	47.9	48.8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도로		23.9	33.8	18.8	24.7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도로		17.0	18.2	25.0	19.4
기 타		3.2	9.1	5.2	4.9
무 응 답		2.6		3.1	2.2
N		188	77	96	361

따라서,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일 하겠다는 學生은 전체의 92.9%로 서 絕對多數 인데, 그 중 48.8%의 學生들은 “살기 좋은 정도” 로, 24.7%는 “우리나라에 서 가장 살기 좋은 정도” 로, 19.4%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도” 로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2. 志 向 性

(5) 大學卒業後 하기를 願하는 일

당신은 대학졸업후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9> 大學卒業後 하기를 願하는 일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자기가 배운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원한다		41.5	29.9	17.7	32.7
다른나라에 가서 더 배우기를 원한다		31.4	33.8	43.8	35.2
고향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12.5	29.9	14.6	16.9
육지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4.8	1.3	13.5	6.3
높은 벼슬을 가지기를 원한다		9.6	5.2	7.3	8.0
무 응 답				3.1	0.8
N		188	77	96	361

<표E-9>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배우기를 원한다”가 35.2%로 제일 많고, 다음이 “자기가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원한다”가 32.7%, 그리고 “고향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가 16.9%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가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원한다” (32.7%) 와 “고향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16.9%) 를 합하여 49.6%만이 他人과 故郷發展을 위한 犧牲·奉仕의 態度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당신은 大學卒業者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10> 大學卒業者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

항목	구분	
	敎	師 住 民
자기가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44.5	55.8
다른나라서 가서 더 배우기를 원한다	7.1	3.8
고향에 와서 일해 주기를 원한다	36.1	35.7
육지에 가서 일해 주기를 원한다	1.3	0.3
높은 벼슬을 가지기를 원한다		2.8
무 응 답	11.0	1.6
N	155	319

<표E-10>에 의하면 敎師들의 반응을 보면 “자기가 배운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가 44.5%로 으뜸이고, 다음이 “고향에 와서 일해 주기를 원한다” 가 36.1%의 순위이다.

住民의 경우도 “자기가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가 (55.8%), “고향에 와서 일해 주기를 원한다” (35.7%) 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兩者 모두가 大學卒業者에게 첫째 자기가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둘째 고향에 와서 일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두 항목에 대한 반응은 敎師·住民들이 학생들 보다 높은데, 特히 주민들은 (55.8%) 敎師들 (44.5%) 보다 “자기가 배운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데, 學生들이 (35.7%) 다른 나라에서 더 배우기를 원한다는 반응의 비율이 兩者보다 높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6) 大學卒業後 일하기를 바라는 곳

당신은 대학졸업후 어디서 일하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11>에 의하면 大學卒業後 일하기를 바라는 곳으로 “都市” 에서가 41.6%로 가장 많고, 다음이 “農村” 에서가 27.1%, 그리고 “아무데서나” 가 23.3%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E-11> 大學卒業後 일하기를 바라는 곳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도시에서		51.1	23.4	37.5	41.6
농촌에서		23.4	49.3	16.7	27.1
아무데서나		20.7	18.2	32.3	23.3
결정짓지 못했다		3.7	7.8	9.3	6.1
무 응 답		1.1	1.3	4.1	1.8
N		188	77	96	361

따라서 “아무데서나” (23.3%)는 都市나 農村 어느 곳으로나 갈 수 있는 可能性이 짙은바, “도시에서” (41.6%)와 합하여 64.9%의 學生들은 卒業後 都市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고, “농촌에서” (27.1%)와 합한 50.4%는 農村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動搖함이 없이 “農村에서” 일하겠다는 學生은 全體의 약 3할 정도이다. 한편, 당신은 大學卒業자들이 어디서 일해주시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E-12> 大學卒業자에게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곳 (教師·住民)

항목	구 분	教 師	住 民
도시에서		3.2	7.2
농촌에서		54.8	61.1
아무데서나		32.3	16.3
무 응 답		9.7	15.4
N		155	319

<표E-12>에 의하면 教師들은 도시·농촌 양곳으로 갈 확율이 높은 “아무데서나” (32.3%)와 “농촌에서” (54.8%)를 합한 전체의 87.1%는 “農村에서” 일해주시기를 바라고, “도시” (3.2%)를 합한 58.0%는 “都市에서” 일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住民들의 경우도 77.4%는 “農村에서”, 23.5%는 “都市에서” 일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兩者 모두 大學卒業자에게 “農村에서” 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첫째번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傾向은 兩極으로 갈 可能性이 짙은 “아무데서나”를 除外하면 學生들 (27.1%)보다 教師 (54.8%)가, 教師들보다 住民들 (61.1%)이 더욱 바라고 있는 것 같다.

(7) 都市로 나가고 싶은 생각

당신은 도시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

결과 같다.

<표E-13> 都市로 나가고 싶은 生覺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나가고 싶다		50.5	33.8	37.5	43.5	19.4	21.0
나가고 싶지 않다		12.3	31.1	12.5	16.3	27.0	29.2
생각해 본 일이 없다		7.4	6.5	21.8	11.1	21.8	13.2
기회가 있으면 나갈려고 한다		28.2	28.6	21.8	26.6	29.6	24.0
무응답		1.6		6.3	2.4	2.2	12.2
N		188	77	96	361	155	319

<표E-13>에 의하면 學生들은 “나가고 싶다”가 43.5%로 으뜸이고, 다음이 “기회가 있으면 나갈려고 한다”가 26.6%, 그리고 “나가고 싶지 않다”가 16.3%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가고 싶다”고 반응한 43.5%와 “기회가 있으면 나갈려고 한다”고 응답한 26.6%를 합하면, 결국 70.1%의 學生들은 “도시로 나가고 싶다”는 都市憧懷心을 갖고 있다 하겠다.

教師들의 경우는 “나가고 싶다” (19.4%)와 “기회가 있으면 나가고 싶다” (29.6%)를 합한 49.0%의 教師들은 都市로 나가고 싶다는 肯定的인 반응을 보이는데 반하여, 住民들은 45.5%가 都市憧懷心을 갖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住民들 (45.5%) 보다는 教師들이 (49.0%), 教師들 보다는 學生들 (70.1%)이 都市憧懷心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이는 <표E-11>에서 大學卒業後 도시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學生이 41.6%인점으로 보아 있을 수 있는 現象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現象이 漠然한 都市憧懷心에서 오는 것인지, 이를 分析해 보려는 것이 다음 問項이다.

(8) 만일 나가고 싶다면 그 理由

만일 都市로 나가고 싶다면, 그 理由는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에 나가고 싶은 나가고 싶지 않든간에, 만일 나가고 싶다면 그 理由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 것이 <표E-14>의 結果이다.

이에 의하던 學生들은 나가고 싶다는 理由中에서 가장 큰 것이 “子女教育을 위해서” (39.6%), 다음이 “기타” (27.4%)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의 내용으로서는 “出世”와 “지금의 단계로서는 모든 行政·知的인 것이 都市에 密集되 있다든가, 폭 넓은 生活經

驗을 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있다.

<표E-14> 나가고 싶은 理由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教師	住民
농촌에서 도저히 살수 없으므로		2.1	2.6	3.1	2.4	2.6	5.6
도시에 나가면 어떻게하든 잘산다		1.1	3.9	3.1	2.2	2.6	3.4
자녀 교육을 위해서		38.8	38.8	41.7	39.6	56.1	47.6
수입이 적어서		10.1	5.2	5.2	7.8	7.7	9.7
기 타		28.7	29.9	22.9	27.4		
무 응 답		19.1	19.5	23.9	20.5	30.9	33.5
N		188	77	96	361	155	319

教師들은 첫째 “子女교육을 위해서” (56.1%), 둘째 “收入이 적어서” (7.7%) 이고, 住民들도 첫째 “子女교육을 위해서” (47.6%), 둘째 “收入이 적어서” (9.7%) 를 들고 있다.

따라서 學生·教師·住民 3者 모두 “子女교육을 위해서” 都市로 나가고 싶다고 그 첫째의 理由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學生들 (39.6%) 보다 住民들이 (47.6%), 住民들보다 教師들 (56.1%) 이 더 關心을 갖는 것 같다. “기타” 는 學生들 (27.4%) 이 더 關心을 갖는 것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簡單한 문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農漁村教育環境助成 및 教育體制의 改革을 促求하는 것으로서 意味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都市에 대한 막연한 羨望이나 希望이 그와같은 切實한 要求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것이 基本的인 原因이라고 診斷되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今般 政府가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는 農漁村에 대한 重點的인 投資와 새마을 事業은 효율적으로 전개되어 보람있는 成果를 얻을 수 있도록 政策的인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學生은 勿論 農漁民들의 離農集都하는 現象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生活의 安定感을 갖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리라 여기는바, 都市·農村의 均衡발전 發達을 새삼 想起시킨다.

F. 奉仕活動에 關한 問題

이 問題領域에서는 大學生 奉仕活動의 贊否, 그 時期, 組織, 奉仕活動을 하고 간후 중 아진 점 및 나빠진 점, 奉仕活動의 順位等에 關한 設問을 包含시켰다.

(1) 農漁村에서의 大學生 奉仕活動에 대한 贊否

당신은 농·어촌에서의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1>

大學生 奉仕活動에 대한 贊否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住民	教師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본다		35.1	46.8	38.5	38.5	40.6	66.5
좋은 일이라고 본다		37.2	27.3	34.4	34.3	34.8	24.4
그저 그렇다		16.5	18.2	17.6	17.2	14.8	8.5
나쁜 일이라고 본다		1.1	1.3	1.0	1.1	1.3	0.3
매우 나쁜 일이라고 본다		2.1		6.2	2.7		
무응답		7.9	6.5	2.1	6.1	8.4	0.3
N		188	77	96	361	155	319

<표F-1>에 의하면 농어촌에서의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學生들은 “매우 좋은 일” 이 38.5%로 수위를 차지하고, 다음이 “좋은 일” 이 34.3%, 그리고 “그저 그렇다” 가 17.2%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좋은 일” (38.5%) 과 “좋은 일” (34.3%) 을 합한 72.8%의 學生들은 농어촌에서의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좋은 일” 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21.0%는 “보통” 이거나 “나쁜 일” 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매우 좋은 일” (40.6%) 과 “좋은 일” (34.8%) 을 합한 75.4%의 教師들이 “좋은 일” 로 생각하고, 나머지 16.2%는 “보통” 이거나 “나쁜 일” 로 생각하고 있다.

住民들도 “좋은 일” 이 90.9%, “보통” 이거나 “나쁜 일” 이 8.8%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學生들 (72.8%) 보다는 教師들이 (75.4%), 教師들 보다는 住民들 (90.6%) 이 월등히 높은 점이 특히 눈에 띈다.

(2) 大學生 奉仕活動 時期

당신은 대학생 봉사활동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2>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기에 대하여 “하계 봉사가 좋다” 4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번기에 나가는 것이 좋다” 가 31.0%, 그리고 “수시로 나가는

것이 좋다" 가 15.2%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F-2> 大學生의 奉仕活動 時期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하계 봉사가 좋다		41.5	42.9	35.4	40.2
동계 봉사가 좋다		3.7	6.5	4.1	4.4
수시로 나가는 것이 좋다		19.1	10.4	11.2	15.2
농번기에 나가는 것이 좋다		22.3	36.4	43.8	31.0
농한기에 나가는 것이 좋다		7.9	3.9	5.2	6.4
무 응 답		5.3			2.6
N		188	77	96	361

따라서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봉사활동 시기가 달라져야 되겠지만, 추운 겨울 보다는 활동이 자유로운 하계봉사를 원하는 듯 하다. 앞으로 본교대학생 봉사활동 시기를 정하는데 참고되리라 믿는다.

본도는 반농(半農) 반어(半漁)의 지방이지만, 대부분이 농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농번기의 일손 돕기를 원하는 학생도 3할이나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한 일이다.

(3) 奉仕隊員의 組織

당신은 봉사대원의 조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3> 奉仕隊員의 組織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학교 전학생으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9.6	9.1	5.2	8.3
학부별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10.1	9.1	10.4	9.9
학과별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20.7	28.6	24.0	23.3
클럽으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22.3	19.5	19.8	21.0
남녀 혼성팀으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13.2	13.0	11.2	12.7
각 학과 혼성팀으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6.9	2.6	8.3	6.4
무 응 답		17.0	18.2	20.8	18.3
N		188	77	96	361

<표F-3>에 의하면 봉사대원의 조직에 대하여 "학과별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가 23.3%인 8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Club" 으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 가 21.0%인 76명,

그리고 무응답을 제외한 “남녀 혼성팀으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가 12.7%인 46명의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사자의 4분의1 가량은 봉사대원의 조직으로 “학과별 조직”을 찬성하고, 5분의1은 “Club별 조직”을 희망하고, “남녀 혼성팀”은 1할 남짓 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봉사대원의 조직을 원하는 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려는 데서 다음 문항을 작성 배포하였고, 반응율이 높은 항목만을 골라 본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반응이 높은 학과별, 클럽별, 남녀 혼성팀이 좋다는 그 구체적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F-4> 學科別로 組織이 좋다는 理由

항목	구분	學科別 贊成者
전공을 살려서 계획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		11.9
서로 아는 사이므로 협동정신이 쉽게 발휘된다		16.7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1.2
여러 곳에 봉사할 수 있다		1.2
수시로 나가 봉사할 수 있다		2.4
태만·게으름을 할 수 없다		1.2
무 응 답		65.4
N		84

<표F-4>에 의하면 학과별 조직을 찬성하는 자 84명의 그 찬성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면, 첫째 “서로 아는 사이므로 협동정신이 쉽게 발휘된다” (16.7%), 둘째 “전공을 살려서 계획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 (11.9%)를 들고 있다.

<표F-5> 클럽으로 組織되는 것이 좋다는 理由

항목	구분	클 럽 贊成者
같은 목적의식하에서 협동 단결이 잘 된다		64.5
클럽의 성격을 살려 집중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14.5
부담없이 행동 할 수 있다		5.3
다양한 지식을 보급 할 수 있다		2.6
서로 존경 할 수 있다		2.6
경우에 따라 빠져도 도외시 당하지 않는다		1.3
주민들의 부담이 적다		1.3
무 응 답		7.9
N		76

<표F-5>에 의하여 클럽별 조직을 찬성하는 학생 76명이 그 찬성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같은 목적의식하에서 협동·단결이 잘 된다”가 64.5%로 당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가 “클럽의 성격을 살려 집중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14.5%)고 되어 있다.

이 2이유를 합하면 전체 76명중 79.0%인 60명으로 거의 4분지3에 이르고 있다.

<표F-6> 男女 混成팀의 組織이 좋다는 理由

항목	구분	혼성 팀 찬성자
남녀별로 봉사할 수 있고 협력자세를 배양한다		15.2
분위기 조성이 되어 일이 능률적이다		36.9
이성교제의 기회도 된다		10.9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난다.		2.1
무응답		34.8
N		46

<표F-6>에 의하면 세번째로 높은 율을 보인 남녀 혼성팀을 찬성하는 자의 그 찬성이유로서 첫째 “분위기 조성이 되어 일이 능률적이다” (36.9%)가 당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둘째 “남녀별로 봉사할 수 있고 협력 자세를 배양한다” (15.2%), 셋째 “이성교제의 기회도 된다” (10.9%)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찬성이유는 앞으로의 봉사내용과 지역에 따라 봉사대원 조직과 편성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리라 여겨진다.

(4) 奉仕活動을 하므로써 끼치는 좋은 影響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써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점을 선택하라는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7> 奉仕活動에 依해서 끼치는 좋은 影響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 體
아동의 태도, 학습열		14.5	13.5	11.2	13.5
주민들의 기술향상		10.3	13.4	12.8	1.6
농어민의 의욕향상		17.1	16.2	18.1	17.2
농민의 협동심 양양		19.9	20.9	19.1	19.8
위생관념 철저		14.5	12.2	12.8	13.8
4-H 활동 활발		3.7	3.5	3.2	3.4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19.9	20.2	22.8	20.7
N		351	149	188	688

※ 합계가 361보다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F-7>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써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점으로는 첫째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20.7%), 둘째 “농민의 협동심 양양” (19.8%), 셋째 “농어민의 의욕향상” (17.2%), 넷째 “위생관념 철저” (13.8%), “아동의 태도·학습열” (13.5%), 다섯째 “주민들의 기술향상” (11.6%)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간후 제일 좋아진 점을 선택 하신다면 무엇이겠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敎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8> 大學生이 奉仕活動을 하고간 後 좋아진 點 (敎師·住民)

항목	구분	
	敎	師 住 民
아동의 태도·학습	8.1	14.6
주민들의 기술향상	8.1	11.7
농민의 의욕향상	17.0	12.7
농민의 협동심 양양	16.6	17.9
위생관념 철저	11.7	9.5
4-H활동 활발	14.6	11.7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23.8	22.0
N	223	514

※ 합계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F-8>에 의하면 敎師들은 첫째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23.8%), 둘째 “농민의 의욕향상” (17.0%), 셋째 “농민의 협동심 양양 (16.6%), 넷째 “4-H활동 활발” (14.6%), 다섯째 “위생관념 철저” (11.7%), 등을 들고 있다.

住民들의 경우 첫째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22.0%), 둘째 “농민의 협동심 양양” (17.9%), 셋째 “아동의 태도·학습열 (14.6%), 넷째 “농민의 의욕향상” (12.7%), 다섯째 “주민들의 기술향상 및 4-H활동 활발(11.7%) 등을 들고 있어 범위는 같으나 첫번째를 제외 하고서는 그 순위는 敎師와 다르다.

따라서 3자 모두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써 미칠 제일 좋은 점으로서 첫번째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과 두번째로 “농민의 협동심 양양” 을 공통으로 들고 있으며, 敎師와 學生은 “농민의 의욕향상” 을 세번째로 두는데 반하여, 住民들은 “아동의 태도·학습열” 을 들고 있다.

항목별 반응을 보면 (1)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에 있어서는 學生 (20.7%) 을 보다는 住民 (22.0%) 이, 住民 보다는 敎師 (23.8%) 가 중시하는 것 같다. (2) 농민의 협동심 양양” 에서는 敎師 (16.6%) 보다는 住民들이, 住民들 보다는 學生 (19.8%) 들이 더 중시하는 것 같다. (3) “농민의 의욕향상” 에서는 住民 (12.7%) 들 보다는 學生

(17.2%) 과 教師 (17.0%) 들이 더 중시하는 경향이다. (4) “아동의 태도·학습열” 에서는 住民 (14.6%) 들 보다는 學生 (13.5%), 學生들 보다는 教師 (8.1%) 들이 좀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5) 奉仕活動을 하므로써 끼치는 나쁜 影響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써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나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9> 奉仕活動을 함으로써 끼치는 나쁜 點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없다		10.3	14.6	13.2	12.0
도시 동경심이 높다		19.8	16.8	17.4	18.6
사치성이 높다		18.1	17.8	20.7	18.8
의타심이 높다		9.5	10.1	7.4	9.5
순수성 상실		9.9	9.2	8.2	9.2
열등감 조성		32.3	31.5	33.0	31.8
N		232	89	121	442

※ 합계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임

<표F-9>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써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점으로서 첫째 “열등감 조성” (31.8%), 둘째 “사치성이 높다” (18.8%), 셋째 “도시 동경심이 높다” (18.6%), 넷째 “나빠진 것이 없다” (12.0%)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간후 나빠진 점으로서는 무엇을 들수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教師·住民의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10> 大學生이 奉仕活動을 하고간 後 나빠진 點

항목	구분	教	師	住	民
없다			30.4		51.0
도시 동경심이 높다			30.4		17.0
사치성이 높다			11.6		10.1
의타심이 높다			6.5		3.7
순수성 상실			7.9		3.5
열등감 조성			13.0		13.7
N			138		255

<표F-10>에 의하면 敎師들은 “나빠진 것이 없다” (30.4%) 를 제외하면 첫째 “도시 동경심이 높다” (30.4%), 둘째 “열등감 조성” (13.0%, 세째 “사치성” (11.6%) 을 들고 있다.

住民들도 “나빠진 것이 없다” (51.0%) 를 제외하면 첫째 “도시 동경심이 높다” (17.6%), 둘째 “열등감 조성” (13.7%), 네째 “사치성 높다” (10.1%) 등의 순위로 그 범위와 순위는 같다.

따라서 3자 모두가 비율의 차는 있으나 “도시 동경심” “사치성” “열등감 조성” 등을 세 번째의 범위의 순위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므로써 끼치는 나쁜 점으로 들고 있다

항목별 반응을 보면 “도시 동경심”에서는 住民 (17.6%) 과 學生 (18.6%) 들 보다 敎師 (30.4%) 들이 현저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學生들은 “사치성”에서 敎師 (11.6%), 住民 (10.1%) 들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열등감 조성”에서는 배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로 미루어 앞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6) 奉仕活動 內容中 必要한 것

당신은 봉사활동 내용중 다음 어떠한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F-11> 奉仕活動 內容中 必要한 것

항목	구분						
	法	農	水	全體	敎師	住民	
의료활동 부문	15.5	5.1	9.0	11.4	17.4	14.8	
교양과 오락지도	24.1	19.2	19.8	21.7	12.1	7.0	
노력 봉사	11.4	16.2	18.0	14.3	19.8	14.8	
생활 개선	38.6	33.3	36.8	38.7	11.4	15.1	
각종 조사활동	4.5	6.0	2.5	4.3	6.1	4.5	
농·수산 기술 보급	5.9	20.2	13.0	9.6	33.1	43.6	
N	220	99	122	441	132	330	

※ 합계가 많은 것은 2중 응답자가 있기 때문 임

<표F-11>에 의하면 學生들의 봉사활동 내용중 제일 필요한 것으로 첫째 “생활개선” (38.7%), 둘째 “교양과 오락지도” (21.7%), 세째 “노력봉사” (14.3%), 네째 “의료활동” (11.4%)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 “농·수산기술보급” (33.1%), 둘째 “노력봉사”

(19.8%), 세째 “의료활동” (17.4%), 네째 “교양과 오락지도” (12.1%의 순위이며, 住民들도 첫째의 순위는 “농·수산기술 보급” (43.6%) 으로 敎師와 같고, 둘째 “생활개선” (15.1%), 세째 “노력봉사” 및 “의료활동” (14.8%), 네째 “교양과 오락지도” (7.0%) 의 순위로 나타나 敎師와 學生과 다르다.

봉사활동의 내용으로서 현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 활동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할 때 住民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반응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항목별 반응을 보면 “의료활동”에서는 學生 (11.4%) 보다는 住民 (14.8%) 이, 住民 보다는 敎師 (17.4%) 가 더 중시하는 것 같고, “교양과 오락지도”에서는 住民 (7.0%) 보다 敎사 (12.1%) 가, 敎師보다 學生 (21.7%) 이 더 중시하는 것 같고, “노력봉사”에서는 學生 (14.3%) 및 住民보다 敎師 (19.8%) 가 더 중시하는 것 같고, “생활개선”에서는 敎師 (11.4%) 보다 住民 (15.1%) 이, 住民보다 敎師·學生 (38.7%) 이 월등히 더 중시하는 것 같고, “농·수산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學生 (9.6%) 보다 敎師 (33.1%) 들이, 敎師보다 住民 (43.6%) 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것 같다.

IV. 結 論

A. 要 約

濟州大學生의 價値觀과 새 마음운동 寄與度 測定 調査에서 밝혀진 主要 事實들을 要約 하던 다음과 같다.

A. 價値觀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6할 이상의 學生들은 人生의 目標로서 행복한 가정생활·결혼생활과 완전한 인격완성에 두고 있다. <표A-2>

그리고 7할 정도의 敎師는 완전한 인격완성과 부자가 되는 것, 또 같은 비율의 住民은 자선사업과 완전한 인격완성에 두고 있다. <표A-3>

특히, 행복한 가정·결혼생활에 대한 반응은 學生이 보다 높고, 완전한 인격완성은 敎師가 훨씬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선사업은 住民이 훨씬 높다.

2. 현재 學生들의 6할 이상은 목적의 실현과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원단할 때 幸福感을 느끼고 있다.

7할 이상의 敎師는 목적의 실현과 가정생활이 즐거울 때, 6할 이상의 住民은 목적의 실현과 협동적인 일의 성취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표A-4>

특히 敎師는 目的의 實現에서, 住民은 협동적인 일의 성취에서 각각 보다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현재 學生들의 7할은 대학의 성격에 대해서 교양을 쌓는 곳,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教師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 교양을 쌓는 곳, 住民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A-6>

특히 學生은 敎養을 쌓는 곳, 教師는 學問을 研究하는 곳, 住民은 指導者를 養成하는 곳이란 항목에서 각각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4. 현재 學生들의 6할 정도는 장래 돈을 벌 수 있는 職種이나 社會奉仕를 할 수 있는 職種을 擇하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A-14>

이에 대하여, 教師들은 대학출신자들에게 技術을 普及 할 수 있는 職種을, 住民들은 社會奉仕를 할 수 있는 職種을 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표A-15>

5. 學生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힘들여 가르칠 敎訓으로서 獨立精神·強한 信念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A-18>

이러한 경향은 教師·住民들도 같은데 <A-19>, 특히 教師·學生들의 반응이 높다.

6. 현재 전체의 56.0%의 學生들은 家庭儀禮準則을 잘 實踐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A-22>

그리고 전체의 21.2%의 教師들은 이 고장 주민들이 가정의례준칙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住民들의 반응은 55.8%로서 교사보다 높다. <표A-23>

7. 현재 전체의 6할 이상의 學生들은 배우자선택의 기본조건으로서 人格·性格과 健康·容貌를 들고 있고, 전체의 8할 이상의 教師와 住民들은 人格과 生活力을 들고 있다. <표A-28> 특히 教師들은 人格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8. 현재 전체의 6할 이상의 學生들은 定婚하는 方法으로서 自己가 선택한 사람을 들고 있고, 教師·住民들은 부모와 서로 의논해서 정한 사람을 중시하는 경향인데, <표A-29> 이에 대한 반응은 특히 教師가 높다.

9.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의 6할 정도의 學生들은 宗教를 가지고 있고, 教師는 전체의 54.2%, 住民은 53.9% 이다. <표A-31>

종교를 가진 반응의 비율은 學生들이 높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學生들은 기독교를, 教師·住民들은 불교를 많이 믿는 경향이다. <표A-32>

10. 그리고 또 전체의 46.8%의 學生들은 宗教가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반응을 보이고, 教師는 45.7%, 住民은 32.6%이다. <표A-33>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주민들보다 學生·教師들이 높다.

B. 近代化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學生들은 농어민들이 새로운 농·수산기술이나 영농방법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곳으로 農村指導者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B-1>

그리고 教師들은 新聞·冊에서, 住民들은 農村指導者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배운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표B-2>

2. 현재 마을의 실정으로 보아 近代化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學生·教師·住民 三者 모두 生活의 合理化 및 科學化와 住民生活水準 向上을 들고 있다. <표B-3> 특히 住民生活水準 向上의 항목에서는 教師·住民들이, 生活의 合理化 및 科學化의 항목에서는 學生·教師들이 각각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3. 현재 學生·教師·住民 三者 모두 새 마을을 개발하는데 제일 필요한 점으로서 새로운 農業技術을 들고 있다. <표B-6>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教師·住民들이 높은 傾向이다.

4. 현재 學生들이 가장 강하게 친밀감을 느끼는 집단으로서는 같은 나이의 親舊들을 들고 있고, 教師·住民들은 같은 生活程度의 사람들을 들고 있다. <표B-8>

5. 현재 學生·教師·住民들이 이웃끼리 서로 돕는 일은 마을 共同일이 생겼을 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B-9> <표B-10>

6. 현재 學生과 教師들은 교외생활에서 親睦團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住民들은 青年會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표B-11> <표B-12>

7. 현재 學生·教師·住民들은 社會的으로 이름을 떨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사람됨을 들고 있다. <표B-14>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學生과 教師들이 높은 편이다.

8. 현재 學生·教師·住民 三者 모두 본도의 학생들이 犯罪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나쁜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둘째 일할 곳이 없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표B-16>

9. 현재 學生들의 대부분은 閑暇한 時間을 이용해서 배우고 싶은 일은 첫째 책 읽기, 둘째 家庭收入을 늘리기 위한 技術副業을 들고 있다. <표B-17>

그리고 教師는 첫째 가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술부업, 둘째 책 읽기, 住民은 첫째 가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술부업, 둘째 마을 일을 돕는다는 것이다. <표B-17> 특히 學生들은 책 읽기란 항목에서, 教師·住民들은 家庭收入을 늘리기 위한 技術副業의 항목에서 각각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10. 현재 學生·教師·住民들은 모두 라디오·新聞·雜誌등을 다 좋아하고 있다. <B-19>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주민들 보다 教師, 교사들 보다 學生들이 높은 편이다.

11. 현재 學生들의 대부분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외에 運이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教師는 61.3%, 住民은 52.6%이다.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주민들 보다 教師, 교사들 보다 學生들이 높은 경향이다.

12. 學閥이 出世하는데 큰 役割을 한다는 반응은 學生들이 59.2%, 教師들은 66.4%,

住民들은 64.5%로 나타나고 있다. <표B-22> 특히 학생들 보다 敎師·住民들이 學問을 重視하는 경향이다.

13. 현재 學生·敎師·住民들은 우리의 固有한 生活樣式을 西洋式 生活樣式보다 더 원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표B-23>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학생들 보다 敎師, 교사들 보다 住民들이 높은 경향이다.

그리고 學生들은 西洋式 生活樣式을 원한다는 반응이 敎師·住民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 현재 전체의대부분의 學生·敎師·住民들은 장래 農漁村生活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는 希望의이고 樂觀的인 見解를 갖고 있다. <표B-24>

그리고 현재 보다 살기가 좋을 理由로서는 三者 모두 첫째 農漁民 所得增大, 둘째 生活改善을 들고 있다. <표B-25> 특히 學生들은 生活改善에 관심을 갖는데 대해서, 敎師·住民들은 農漁民 所得增大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關心度는 주민들 보다 敎師들이 높은 편이다.

C. 새 마을운동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學生들은 본교생들의 自助·自立·協同精神에 대하여 자조정신 (15.0%) 보다 協同精神 (19.0%), 협동정신보다 自立精神 (28.5%) 이 좋은 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C-1> <표C-3> <표C-5>

그리고 自助精神이 弱한 理由로서 첫째 周圍環境이 나쁘기 때문에, 둘째 게으르기 때문에, 셋째 其他로서 劣等意識등을 들고있다. <표C-2>

2. 현재 學生들은 農漁村住民들의 새 마을정신에 대하여 협동정신 (63.9%) 보다 自助精神 (66.7%), 자조정신 보다 自立精神 (71.1%) 이 좋은 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C-7> <표C-10> <표C-13>

3. 敎師들도 農漁村住民들은 협동정신 (40.6%)보다 自助精神(54.1%), 자조정신 보다 自立精神 (58.0%) 이 좋은 편이라고 학생과 반응의 비율의 차는 있으나, 그順位는 같다. <표C-8> <표C-11> <표C-14> 또한 協同心이 弱한 理由로서는 첫째 犧牲精神이 不足하기 때문에, 둘째 團體活動이 서툴기 때문에, 셋째 指導者가 없기 때문에, 넷째 人間關係를 重要視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표C-15>

4. 그리고 또, 住民들도 農漁村住民들은 自助精神 (75.0%) 보다 自立精神 (73.7%), 自立精神보다 協同精神 (48.3%)이, 좋은 편으로 보는 반응의 비율이 가장 낮다 <표C-8> <표C-11> <표C-14>

그 協同心이 弱한 理由로서 첫째 犧牲精神이 不足하기 때문에, 둘째 團體活動이 서툴기 때문에, 셋째 分裂心이 強하기 때문에, 넷째 指導者가 없기 때문 등을 들고 있다.

특히 住民들은 犧牲精神의 不足·分裂心의 傾向에서, 敎師들은 指導者·人間關係의 향목

에서 각각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표C-15>

5. 현재 學生들은 都市住民들의 새마을 精神에 대하여 협동정신 (5.8%) 보다 自助精神 (25.2%), 자조정신보다 自立精神 (53.4%) 이 좋은 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C-16> <표C-17> <표C-18>

6. 현재 學生들의 대부분은 새마을운동에 關心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보통 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표C-19>

그리고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첫째 社會, 둘째 매스·콤을 뚜렷하게 들고 있다. <표C-20>

7. 현재 6할 이상의 學生들은 새마을운동은 農村과 都市 並行하여 展開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2할 이상은 農村에서 먼저 展開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C-21>

8. 현재 學生들은 都市의 새마을事業으로서 첫째 都市美化, 둘째 새마을精神의 確立, 세째 儉素한 生活, 네째 퇴폐풍조 일소 등을 들고 있다. <표C-23>

9. 그리고 學生들은 農村의 새마을운동事業으로서는 첫째 農路擴張, 둘째 새마을精神의 確立, 세째 新生活運動, 네째 科學的인 機具에 의한 營農方法改善, 다섯째 所得增大方案, 여섯째 지붕改良등을 들고 있다. <표C-24>

D. 새 마을 指導者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大部分의 學生들과 住民들은 새마을指導者의 學歷으로서 첫째 學歷에 無關, 둘째 高校卒業者를 들고 있다. <표D-1> 그런데, 教師는 첫째 高校卒業者, 둘째 學歷에 無關을 들고 있다. <표D-1>

2. 현재 學生·教師·住民들은 모두 새마을指導者의 專攻分野로서 사람을 잘 統率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표D-2>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교사보다 學生들이, 학생보다 住民들이 높다.

3. 현재 學生·教師·住民들은 모두 새마을指導者의 性格으로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표D-3>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교사보다 學生들이, 학생보다 住民들이 훨씬 높다.

4. 현재 전체의 過半數의 學生·教師·住民들은 새마을指導者의 出身地域에 대하여 濟州에서 가라난 사람을 들고 있다. <표D-4>

5. 현재 전체의 반수정도의 學生·教師·住民들은 모두 30代의 새마을指導者를 원하고 있다. <표D-5>

특히 이에 대한 반응은 學生이 약간 높다.

6. 현재 전체의 반수정도의 學生·住民들은 새마을指導者의 數에 대하여 한 마을에

많을수록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特히 이에 대한 반응은 住民들이 높다. <표D-4>

그리고 한 마을에 알맞는 指導者의 數는 學生과 教師들은 3명 이상, 住民들은 2명 이상을 들고 있다.

7. 현재 大部分의 學生들은 새마을指導者로서 갖추어야 할 條件으로서 첫째 知識·判斷力, 둘째 謙遜·大衆的, 셋째 愛國·愛族을 들고 있다. <표D-8>

그런데 教師·住民들은 양자 모두 첫째 正直·公正性, 둘째 謙遜·大衆的, 셋째 知識·判斷力을 들고 있다. <표D-8>

특히 學生들은 知識·判斷力, 教師·住民들은 正直·公正性을 더욱 重要視하는 傾向이다

8. 현재 學生들의 대부분은 旺盛한 開發意慾이 있고·住民의 信賴를 받는 사람을 理想的인 새마을指導者로서 指目하고 있다. <표D-9>

그리고 教師·住民들은 指導者로서의 能力·旺盛한 開發意慾·信賴를 받는 사람을 理想的인 새마을指導者로 보고 있는데, <표D-10> 特히 이에 대한 반응은 주민들 보다는 教師들이 높은 傾向이다.

9. 教師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첫째 마을유지, 둘째 學校教師를 議論相對者로서 들고 있는데 반하여, 住民들은 첫째 마을里長, 둘째 마을유지·財力이 있는 사람이다.

<표D-11>

E. 卒業後 部落發展 및 志向性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의 41.7%의 學生들은 지역사회주민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期待를 걸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 57.9%는 보통 또는 별로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E-1>

그러나 전체의 64.5%의 教師와 76.5%의 住民들이 大學生에게 바라는 部落發展에 대한 期待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반응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 <표E-2>

특히 이러한 期待度는 住民들이 높은 傾向이다.

2. 현재 學生들은 教育者의 資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寄與하기를 바라는 반응이 높다. <표E-3>

그러나 教師(31.6%)와 住民(46.7%)들은 指導者의 資格으로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표E-4> 特히 이에 대한 반응은 住民들이 높은 傾向이다.

3. 현재 전체의 82%의 學生들은 卒業後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잘 도와주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E-5>

그러나 실제 大學卒業生들이 部落發展을 위하여 도와주고 있다는 반응은 教師는 전체의 35.5%, 住民은 47.3%로서, <표E-6> 학생의 반응의 비율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현재 과반수의 教師(56.8%)와 住民(57.2%)들은 대학을 졸업한 大學生들이 部

落發展을 위하여 1~3명이 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E-7>

5. 현재 學生들의 大部分은 大學卒業後 첫째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배우기를 원하고, 둘째 자기가 배운 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다. <표E-9>

그러나 教師와 住民들의 大部分은 大學卒業者에게 첫째 자기가 배운것을 남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둘째 고향에 와서 일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표E-10> 特別히 후자의 항목에 대한 반응은 住民들이 높다.

6. 현재 전체의 4할 남짓한 學生들은 대학졸업후 都市에서, 3할 가량은 農村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표E-11>

그러나, 教師 (54.8%) 와 住民 (61.1%) 들은 대학졸업자들에게 農村에서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표E-12> 特別히 이러한 期望은 住民들이 높은 편이다.

7. 현재 전체의 70.1%의 學生들은 都市憧憬心を 갖고 있다. <표E-13>

이러한 憧憬心은 教師는 49.0%, 住民은 45.5%이다. <표E-13>

그리고 都市로 나가고 싶은 가장 두드러진 理由는 3자 모두 子女教育을 위해서 때문이다. <표E-14> 特別히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 보다 住民이, 주민들 보다 教師가 높다.

F. 奉仕活動에서 밝혀진 事實

1. 현재 전체 조사대상자의 72.8%의 學生들은 農漁村에서의 大學生들의 奉仕活動을 좋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21.0%의 學生들은 보통이거나 나쁜 일이라고 보고 있다. <표F-1>

그리고 전체의 75.4%의 教師들도 좋은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住民은 90.9%가 좋은 일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표F-1> 特別히 찬성율은 住民들이 훨씬 높다.

2. 현재 大部分의 學生들은 奉仕活動時期로서 첫째 夏季奉仕, 둘째 農繁期, 셋째 隨時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표F-2>

3. 현재 전체의 6할 정도의 學生들은 奉仕隊員의 組織에 대하여 첫째 學科別 組織이 좋다. 둘째 크림組織이 좋다. 셋째 男女混成팀 組織이 좋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F-3>

그리고 學科別 組織을 贊成하는 理由는 첫째 서로 아는 사이므로 協同精神이 쉽게 發揮된다. 둘째 專攻을 살려서 計劃的인 奉仕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F-4>.

4. 현재 전체의 85%의 學生들은 대학생들이 奉仕活動을 함으로써 끼치는 좋은 영향으로서 첫째 子女教育에 대한 關心, 둘째 農民의 協同心 仰揚, 셋째 農漁民의 意慾向上, 넷째 衛生觀念 徹底, 兒童의 態度·學習熱을 북돋는 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F-7>

그리고 대학생들이 奉仕活動을 하고 간 후 제일 좋아진 점으로서는 教師는 첫째 子女教育에 대한 關心, 둘째 農民의 意慾向上, 셋째 農民의 協同心 仰揚, 넷째 4-H活動 活發性을

들고 있는데, <표F-8> 住民들은 첫째 子女教育에 대한 關心, 둘째 農民의 協同心 仰揚, 셋째 兒童의 態度·學習熱, 넷째 農民의 意慾向上 등을 들고 있다. <표F-8>

三者 모두 첫째 子女教育에 대한 關心, 둘째 農民의 協同心 仰揚을 共通으로 들고 있다. 특히 學生·住民은 兒童의 態度·學習熱, 教師·住民은 4-H活動 활발성이란 항목에서도 약간 높은 반응을 보인다.

5. 그리고 또 전체의 7할의 學生들은 대학생들이 奉仕活動을 함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점은 첫째 劣等感 助成, 둘째 사치성, 셋째 都市憧憬心을 들고 있다.

<표F-9>

그런데 教師·住民들은 모두 대학생들이 奉仕活動을 하고 간후 나빠진 점으로서 첫째의 없다는 반응을 제하면, 둘째 都市憧憬心, 셋째 劣等感 助成을 들고 있다. <표F-10>

특히 住民들은 없다는 項目에서, 教師들은 都市憧憬心에서, 學生들은 奢侈性·劣等感 助成에서 각각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6. 현재 大部分의 學生들이 奉仕活動 內容으로 必要한 것은 첫째 生活改善, 둘째 敎養과 娛樂指導, 셋째 노력奉仕를 들고 있다. <표F-11>

그런데 教師들은 첫째 農水産 技術普及, 둘째 勞力奉仕, 셋째 의료활동 部分의 순위이고, 住民들은 첫째 農水産 技術普及, 둘째 生活改善, 셋째 勞力奉仕 및 의료활동 部分의 순위이다. <표F-11>

특히 學生들은 生活改善, 教師·住民들은 農·水産技術 普及를 重要視 하는 경향인데, 이에 대해서는 住民들이 보다 높은 關心을 갖는 것 같다.

B. 提 言

여기에서는 發見된 事實을 토대로 하여 몇가지 綜合的인 提言을 하고자 한다.

A. 價値觀에서

1. 요약 (A. 1.) 에서 나타난 경향을 토대로 해서 家庭의 敎育·環境 등의 改善點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며, 學生指導面에서 家族關係學(論)을 敎養科目으로 가르칠 必要가 있고, 또 學生들의 人格完成面 敎養指導面이 強化되어야 한다.

2. 요약(A. 3)에서 밝혀진 事實을 토대로 한다면, 大學敎育은 大衆敎育 (Mass Education) 에 重點이 두어져야 한다.

3. (A. 4) 에서 學生들이 움트기 始作한 拜金傾向을 止揚하는 向方으로 善導하여야 한다.

4. (A. 6) 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家庭儀禮準則에 대한 學生들의 支持度는 높은데, 이를 具現하기 위한 善導方案이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

B. 近代化에서

1. 요약 (B. 1) 에서 밝혀진 事實을 토대로, 學生들은 農漁村의 近代化에 指導者의 比重을 크게 보고 있으므로 學生指導에 있어서 指導者로서의 資質을 갖추도록 善導할 必要가 있다.
2. 요약 (B. 4) (B. 8) 에서 나타난 傾向에서, 同類集團의 善導策이 보다 더 強化되어야 한다. 特히 나쁜 親舊를 사귀지 말도록 善導할 必要가 있다.
3. (B. 10) 에 의해서 보면, 매스·콤을 통한 學生들의 善導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매스·콤의 內容이 學生善導를 위한 것이 많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4. (B. 12) 에서 學問을 重視하던 옛 傾向이 減少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地方大學의 育成은 時急하다.
5. (B. 13) 에서 보면, 學生들의 主體意識이 강한 것을 엿볼 수 있는데, 教師·住民들 보다는 弱하다. 그러므로 主體性的 強化를 위한 學生善導는 바람직한 일이다.
6. (B. 14) 를 토대로, 學生들은 生活改善에 보다 더 關心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關心을 農漁民所得增大와 어떻게 聯關시키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보다 더 研究되어야 한다.

C. 새마을운동에서

1. 요약 (C. 1) 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自助精神이 보다 弱하므로, 이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學生들을 善導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協同精神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犧牲精神의 고취가 必要하다.
2. (C. 6) 에서의 경향을 토대로, 學生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關心度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實踐하는 方向으로 善導하여야 한다.
그리고 社會와 매스·콤에서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움직임이 學生들에게 至大한 影響을 주고 있으므로, 社會와 매스·콤과 學生과의 “링크” 를 잘 시키도록 善導하여야 한다.
3. (C. 8) 에서 都市美化에 관해서 學生들의 반응이 크므로, 이에 대한 教養教育이 必要하다.
4. (C. 9) 에서 農路擴張에 대해서 學生들은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 奉仕活動을 振作시킬 必要가 있다.

D. 새마을 指導者에서

1. (D. 1.2.3.4.5.7.8) 에 의해서 밝혀진 事實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새마을 指導者로서 高校卒業 以上, 統率力이 있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濟州出身, 30代이어야 하며, 具備條件으로서 知識·判斷力이 보다 바람직하고, 또 旺盛한 開發意慾과 住民의 信賴를

받는 사람이 理想的인 人物로 밝혀지고 있음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E. 卒業後 部落發展 및 志向性에서

1. (E. 1.3)에서 밝혀진 事實을 토대로 하여, 學生들이 部落發展을 위한 寄與度는 많지 않으나, 그에 대한 參與意識은 매우 強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參與意識을 開發시켜 部落發展에 寄與할 수 있도록 學生들을 善導하여야 한다.

2. (E. 2)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學生들은 教育者의 資格으로 地域社會發展에 寄與하기를 원하지만, 住民들은 指導者로 寄與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學生들로 하여금 指導者로서 地域社會發展에 寄與하도록 善導할 必要가 있다.

3. (E. 5.6.7)에서 밝혀진 事實을 기초로, 學生들의 都市指向性이 크므로, 이를 農村指向性으로 善導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都市指向性을 脫皮하기 위해서 農村에 알맞는 子女教育機關이 補強되어야 한다.

F. 奉仕活動에서

1. (F. 1.2.3.5)에서 밝혀진 事實을 토대로 하여, 學生들의 奉仕活動은 보다 더 強化되어야 함과 同時에, 特히 夏季奉仕活動을 보다 더 願하고 있으며, 學科別 組織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奉仕活動에 있어서 住民들로 하여금 住民들의 劣等感, 사치성, 都市憧憬心등을 誘發시키지 않도록 學生들을 善導할 必要가 있다.

2. (F. 6)에서 밝혀진 事實을 토대로 하여, 奉仕活動에 있어서 必야흐로 從前의 勞力奉仕活動으로 부터 技術奉仕活動으로 코페르니크스의인 轉回를 할 段階에 到達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農漁民 所得增大에 寄與하는 一環策이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 尹承澤, 地域開發—그 方法論과 問題點
T.R. 반턴 著 金昇漢 譯, 地域社會開發事業原論
孫鶴睦 太鍾鶴, 地域開發入門
Walter Isard,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John Friedman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池田善長, 地域開發政策
大韓公論社, 새마을運動
다이론·위너 編著, 車基壁, 金鍾云, 金泳祿 譯, 近代化
丁若鏞, 牧民心書
비얼·보오렌·라우드바우 共著, 吳基亨 譯, 集團活動과 指導力
李相佰 金彩潤 共著, 韓國社會階層 研究
韓國農村社會研究會編, 農村社會學
高永復, 社會心理學
李萬甲, 社會調查方法論
洪承稷, 韓國人的 價值觀 研究
金泰吉, 韓國大學生的 價值觀
梨花女子大學校 農村問題研究所, 女大生の 農村社會開發參與
東國大學校, 東國大學校 開校60周年記念學術심포지움 論文集, 韓國近代化的
理念과 方向,
保健社會部, 社會開發 (第一輯: 基本構想)
서울女子大學 社會學科, 社會學誌 創刊號 第一輯
大韓公論社, 새마을 창간호~7호
평가교수단, 새마을운동 심포지움
金大煥, 地域社會開發과 새마을運動評價에 關한 調查研究.
내무부, 새마을운동이란
洪承稷, 韓國大學生的 價值觀, 『亞細亞研究』第4卷 第1號 PP. 57
林芳鉉, 5·16精神과 새마을精神, 『世代』1972年 7月號.
崔嶢煥, 새마을運動과 人力開發, 『世代』1972年 9月號
亨廣海, 새마을政治組織原理로서의 大回歸, 『政經研究』1972年 11月號
盧昌燧, 韓國都市人的 價值觀
高鳳京, 李萬甲, 李効再, 李海英, 共同,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金斗憲, 韓國農村家族의 研究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尹泰林, 韓國人的 性格

亨恩淑外 3名, 韓國 大學生의 問題, 淑明女子大學校 學生生活指導研究所

『學生生活研究』 6號 PP. 3

淑大生의 價値觀, 淑明女大, 『學生生活研究』 4號 PP. 21

王仁槿, 새마을운동의 새次元, 『世代』 1972年 12月號

金一鐵, 새마을운동과 福祉均霑政策,

『地韓』 1972年 12月號

近代化의 概念規定에 관한 研究, 大邱教大 論文集 第五輯

濟州道, '73, 새마을운동

特輯: 새마을과 소득증대, 『제주도』 56號

特輯: 도시새마을 『제주시』 20號

林芳鉉, 近代化의 波長①, 한국일보, 1968년 1월 18일 (6)

朴振煥, 法制定앞서 農村近代化를, 조선일보 1967년 11월 30일 (3)

李永鎬, 韓國人의 價値觀, 조선일보, 1972년 1월 1, 7, 13, 20일, 2월 3, 10, 24일

韓日學生의 價値觀, 조선일보, 1972年 1月 11日

서울대 신입생들의 價値觀, 조선일보, 1972년 1월 25일 (4)

새마을事業, 조선일보, 1972년 1월 19일 社說

『새마을』 소득증대는 이렇게, 서울신문, 1972년 11월 15일

全昌壽, 새마을精神의 國民啓導方案, 제주신문, 1972년 8월 26일 (5)

새마을운동터전군허—여름放學奉仕活動—제주신문, 1972년 8월 26일 (4)

濟州道精神에 溶解된 새마을사업, 제주신문, 1972년 7월 8일 (4)

73년도 새마을사업靑寫眞, 제주신문, 1973년 2월 3일 (4)

10月維新과 새마을, 제주신문, 1972년 11월 16, 17, 18일

학생애향단연합대회, 제주신문, 1972년 7월 1일

새마을現地, 濟南新聞, 1972년 5월 11일~ 8월 21일 (27회)